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학문 목적 한국어(KAP)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텍스트 접속 표지
교육 방안 연구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효 위

학문 목적 한국어(KAP)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텍스트 접속 표지
교육 방안 연구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Text-Conjunctive Markers to
Improve Writing Ability of Korean Academic Purpose Students
-Text-Conjunctive Adverb of Academic Report-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효 위

학문 목적 한국어(KAP)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텍스트 접속 표지 교육 방안 연구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효 위

이효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영 주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숙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금 순

2020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3
1.3. 연구 내용 및 방법	12
2. 이론적 배경	15
2.1.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과 유형	15
2.1.1.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	15
2.1.2.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 및 유형	22
2.1.2.1.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	22
2.1.2.2. 텍스트 접속 표지의 유형	28
2.2. 학술 보고서의 장르적 특성	36
2.2.1. 학술 보고서의 개념 및 특성	36
2.2.2. 학술 보고서의 유형	37
3.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 대조 분석	40
3.1.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 분석	40
3.1.1. 전체 사용 양상 분석	40
3.1.2. 접속 의미 관계별 사용 양상	44
3.1.3. 텍스트 유형별 사용 양상	47
3.2. 오류 양상 분석	53

3.2.1. ‘그러나’의 오류 양상	54
3.2.2. ‘하지만’의 오류 양상	58
3.2.3. ‘따라서’의 오류 양상	60
3.2.4. ‘그래서’의 오류 양상	62
4.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교육 방안	65
4.1.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 선정	66
4.2. ‘그러나’ 및 ‘하지만’의 교육 방안	69
4.3. ‘그래서’ 및 ‘따라서’의 교육 방안	77
5. 결론	86
<참고 문헌>	89

<표 목차>

<표 1> 담화 표지 연구의 세부 주제	3
<표 2> 선행 연구의 세부 주제	4
<표 3> 텍스트 구조 표지의 유형	17
<표 4> 선행 연구의 용어에 대한 정리	20
<표 5> ‘그-’ 형 접속 부사의 기능	24
<표 6> ‘그리고’ 의 의미 기능 분류	25
<표 7> 의미 관계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목록	28
<표 8> 학술 보고서의 유형	38
<표 9> 집단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전체 사용 빈도	41
<표 10> 의미 관계별 접속 표지 빈도(K 집단)	45
<표 11> 의미 관계별 접속 표지 빈도(C 집단)	46
<표 12> 학술 보고서 유형에 따른 텍스트 접속 표지 총 사용량	47
<표 13> 접속 의미 관계에 따른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K 집단)	48
<표 14> 학술 보고서 유형별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K집단) ..	49
<표 15> 접속 의미 관계에 따른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C 집단)	51
<표 16> 학술 보고서 유형별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C 집단)	52
<표 17> ‘그러나’ 의 의미 기능	54
<표 18>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영역 평가 기준	67
<표 19> ‘그러나’ 와 ‘하지만’ 의 교육 방안	69
<표 20> ‘그래서’ 와 ‘따라서’ 의 교육 방안	7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절차 도식화.....	12
[그림 2] 담화 표지, 텍스트 구조 표지, 텍스트 접속 표지의 관계..	21
[그림 3] PPP 모형의 단계 구성.....	65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Text-Conjunctive Markers to Improve Writing Ability of Korean Academic Purpose Students -Text-Conjunctive Adverb of Academic Report-

LI XIAOWE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In order to improve the writing ability of Chinese KAP(Korean Academic Purpose) students, we make an analysis about text-conjunctive markers in academic writings between KAP students and Korean native speakers. Then based on the result, the paper presents the teaching methods of Education of text-conjunctive markers for Chinese KAP students. This paper contains five chapter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we point out that it is important to learn how to use text-conjunctive markers in the writing process. Then we introduce what is the purpose of the paper and how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Second, based on the semantic relations between sentences or paragraphs, as well as the types of texts, we classify the text-conjunctive markers and academic reports into 4 parts. These results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following chapter. And then, third, with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differences between KAP students and Korean native speakers regarding the usage of text-conjunctive markers in their academic writings, we present detailed analysis what are observed through examination of academic writings of KAP students and Korean native speakers using phenomenon. Based on the analysis improper usage of ‘geu-leo-na’ ‘ha-ji-man’ ‘geo-lae-seo’ ‘tta-la-seo’ ,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for Chinese KAP students to know how to use text-conjunctive markers properly. Fourth, in order to solv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improve writing ability of middle-stage KAP students, we propose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the 'geu-leo-na' , 'ha-ji-man' , 'geo-lae-seo' , 'tta-la-seo by using PPP model. At last, we summarize the paper and imply some problems needed to research and explore in the future.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Korean Academic Purpose student, KAP)¹⁾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술 보고서에 사용된 텍스트 접속 표지(text-conjunctive marker)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술 보고서 텍스트 안의 문장 및 문단 간 접속을 바탕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다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의미와 용법을 정리한 뒤,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덕희(2004)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업 과정에 따른 언어 활동의 난도를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어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활동인 ‘쓰기’와 ‘읽기’ 가운데 ‘쓰기’를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기에서 느끼는 문제가 차봉준(2013), 이효인(2019)에 제시되어 있다. 차봉준(2013)에서는 ‘쓰기 활동 과정의 절차성’, ‘학문 목적 학습자의 쓰기 능력 정체’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이효인(2019)에서는 한국어의 담화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²⁾. 이상의 논의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기 활동을 어려워함에도 학문 목적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그간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을 방증한다³⁾.

1) 본 논문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제3장, 제4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모두 같은 연구 대상인 것이다.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남(2008)에서 학문적 글쓰기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였으며, 박수연(2016)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술적 텍스트는 담화 공동체마다 갖는 엄격한 전형성과 문식성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어려운 영역임을 밝혔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 가운데에서도 학술적 글쓰기는 앞선 바와 같이 나름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쓰기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가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텍스트에서 문법과 어휘의 사용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맥락에 맞게 어휘와 문법을 정확히 사용하여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끌어내어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어 학습자는 텍스트 안에서 문장과 문장, 문장과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표현에 대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텍스트를 구성할 때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정영교(2018)에서는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에 주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텍스트 접속 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술 텍스트 유형 가운데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학술적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접속 관계의 양상을 자세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학술 보고서에 나타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 나타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같은 텍스트 접속 표지라도 텍스트의 특성이나 문맥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학술 보고서 유형에 따른 용법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가 학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

3) 한국 교육부에서 2019년 4월 19일에 개정된 <외국인 유학생 및 표준업무처리요령>에서는 특수한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의 자격 취득을 권장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대학 수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교에서 신입학 유학생들을 위한 쓰기 수업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한 학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선행 연구

텍스트 접속 표지는 초기에 접속 부사 또는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s)의 한 종류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를 다룬 기존의 연구는 ‘텍스트 접속 표지’라는 명칭보다 ‘담화 표지’ 또는 ‘접속 부사’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편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는 주로 개별 접속 부사 또는 담화 표지의 기능과 특성을 밝히고, 분석 결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담화 표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 표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세부 주제별로 정리한 강현화(2011)에 따르면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 및 특성’,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 표지 사용 양상’, ‘담화 표지의 교육 적용 방법’, ‘담화 표지 대조’가 주된 연구 주제로 나타났다. 강현화(2011)에서 정리한 연구 성과 목록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어 교육에서의 담화 표지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담화 표지 연구의 세부 주제

주제	하위 주제		논문 수 (편)
개별 담화 표지 기능 및 특성	거시 담화	학술 논문, 요청 화행	54
	미시 담화	그냥, [그러]형, 그래, 말이다, 좀, 막, 아니, 이/가, 은/는 등	
담화 표지 사용 양상	거시 담화	설득적 텍스트 접속표지, 토론, 학위 논문 서론, 완화 표지, 이야기체 담화, 발표, 작문 텍스트	56
	미시 담화	워, 괜찮다, 네, 등	

담화 표지 교육에서의 적용	담화 표지 학습 효과 연구, 담화 표지 활용, 텍스트구조 표지 이용, 강의 담화 표지 학습, 담화 표지 교수 방법, 담화 표지 위계화 등	40
대조연구	담화 표지에 대한 타 언어 대조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 표지 사용 양상 대조	10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담화 표지 연구는 대부분 주로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 및 특성, 담화 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피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담화 표지의 교육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는 그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화 표지 대조 연구의 수는 앞의 세 연구 주제에 비하여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 주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표 1>에 제시된 연구 성과들을 담화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구어 담화를 대상으로 한 담화 표지 연구는 총 160편 가운데 약 120편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어 담화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를 다룬 연구는 40여 편 정도로, 구어 담화 표지 연구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서 파악한 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어 담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접속 표지를 접속 부사의 관점에서 살핀 연구는 김미선(1996)을 시작으로 신지연(2003, 2004, 2005), 연동숙(2005), 함계임(2006, 2007), 이남경(2008), 유나(2011), 백승주(2011), 전영인(2012), 한송화(2013, 2016), 송현주·비신연(2014), 김도영(2016), 류선숙(2017), 역초(2017), 서평(2018, 2019a, 2019b)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개별 접속 부사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것,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것, 언어 간 접속 부사 대조연구,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속 부사를 고찰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선행 연구의 세부 주제

주제	연구
개별 접속 부사의 기능과	‘그러’ 형: 김미선(1996), 신지연(2004, 2005),

특성 연구	함계임(2006, 2007), 백승주(2011). ‘또한’ : 서평(2018).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	신지연(2003), 유나(2011), 한송화(2013, 2016), 송현주·비시연(2014), 김도영(2016), 류선숙(2017), 역초(2017), 서평(2019a, 2019b)
접속 부사의 대조연구	연동숙(2005), 백승주(2011), 진영민(2012), 서평(2018)
접속 부사의 현황 연구	이남경(2008)

먼저 개별 접속 부사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김미선(1996), 신지연(2004, 2005), 함계임(2006, 2007), 백승주(2011), 서평(2018)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백승주(2011)과 서평(2018)은 각각 한국어 개별 접속표지와 영어, 중국어와 대응하는 표현을 찾고, 그 특성을 대조한 연구이기도 하다. 한편 김미선(1996), 신지연(2004, 2005), 함계임(2006, 2007)은 ‘그러-’ 형 접속 부사에 관한 연구이다.

김미선(1996)은 역접의 접속 부사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접속 부사 사이의 의미 차이를 살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는 대립 관계에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나, ‘그러나’는 대조⁴⁾의 의미가 더 강하고, ‘그렇지만’은 양보의 뜻이 강하다고 하였다. 한편 ‘그런데’는 대립 관계에서 대조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고 하였다.

신지연(2004)에서는 논증 텍스트에서 대조의 접속어인 ‘그러나’가 상위 인지표지로서 명제를 연합하여 주제를 전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그러나’는 상황이나 다른 주장에 대해 화자의 주장을 대립할 때 상위 인지표지로 사용되는 접속 부사라고 정의하였고 논증 텍스트에서 주제 전개 기능과 화자

4) 김미선(1996)은 ‘대조’는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의 의미 내용이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양보’는 선행 내용에 대해 일단은 인정해 주고 나서 반대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대조’는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은 화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양보’는 후행문장에만 화제의 관심을 둔다.

지향적인 논의를 도입하기 위한 표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논증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그러나’의 대립적 인식 표지로서의 기능을, ‘테제-안티테제’, ‘문제-해결’, ‘상황-문제 제기’의 세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그러나’가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분석하였다.⁵⁾

위 연구의 연장 선상이라 할 수 있는 신지연(2005)에서는 ‘그러나’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나’의 대조적 의미를 ‘객관적 대조’, ‘주관적 대조’, ‘함축적 대조’, ‘부분적 대조’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 사용되는 ‘그러나’의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러나’는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대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한편, 대조 기능이 약화된 경우 후행문에 언급된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함계임(2006)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러-’형 접속 부사 중 양보의 의미를 지닌 접속 부사 ‘그래도,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를 대상으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선행문과 후행문의 도치 및 상호 대치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나’와 ‘그런데’는 의미적으로 선행문과 후행문의 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렇지만’이 사용된 경우 일부만 도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상호 대치 관계에서는 ‘그래도’가 양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런데’를 ‘그래도’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런데’로 대치할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한국어 교재의 예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그러-’형 접속 부사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파악하려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함계임(2007)은 함계임(2006)과 유사한 성격의 연구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미가 유사한 접속 부사를 사용할 때 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대립의 의미를 지니는 ‘그러-’형 접속 부사를 문법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나’, ‘그런데’는 공통적으로 선행문과 후행문 사이의 주어 일치 제약과

5) 신지연(2004)는 ‘그러나’는 ‘테제-안티테제’의 관계에서 ‘안티테제’를 호소하고, ‘문제-해결’의 텍스트구조에서 ‘해결’의 반전을 강조하며, ‘상화점검-문제 제기’ 관계에서 ‘문제 제시’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서술어의 성격 제약은 없으나, 서법과 관련하여 ‘그러나’는 의문문에서, ‘그런데’는 후행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끝나는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데’와 달리 세 가지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임을 밝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개별 접속 부사의 기능 및 특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그러-’형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그러-’형 접속 부사뿐 아니라 다양한 접속 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의 능숙한 사용을 위하여 다양한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모국어의 특성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백승주(2011), 서평(2018)에서는 각각 한국어 접속 부사와 영어, 중국어와 대응되는 접속표현을 비교하였다.

백승주(2011)은 영한 병렬 말뭉치를 바탕으로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 접속 부사 ‘그러나’와 영어에서 이와 대응하는 표현과의 차이점을 살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영어에서 나타나는 ‘however, but, yet’ 등 역접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그러나’로 직접 번역되는 경우, 역접 표현이 없어도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접속 부사 ‘그러나’가 사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평(2018)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 소설 및 해당 소설의 중국어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접속 부사 ‘또한’의 의미 기능을 살피고, 그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밝힌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의 대표적인 의미 기능인 ‘첨가’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也, 而且, 並且, 另外, 此外, 以及, 又’ 등 1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접속 부사 ‘또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대응하며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또한’이 ‘첨가’의 의미뿐 아니라 ‘강조’, ‘대등’, ‘동일’의 의미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그러’형의 의미 및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는 신지연(2003), 유나(2011), 한송화(2013, 2016), 송현주·비시연(2014), 김도영(2016), 류선숙(2017), 역초(2017), 서평(2019a, 2019b) 등이 있다.

신지연(2003)에서는 문어 텍스트인 일간지 사설을 대상으로, 단락 간의 접속을 중심으로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텍스트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락과 단락 간에 접속 부사가 실현되는 빈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시적인 접속 수단이 아닌 조사나 양태 표현 또는 어휘적 수단이 접속 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텍스트 내에서 암시적인 접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미시 구조 접속에서 접속 부사의 본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유나(2011)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초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접속표지의 빈도와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접속표지의 사용 빈도는 ‘인과’, ‘시간’, ‘조건’, ‘나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조’, ‘배경’, ‘상황’의 접속 표지는 그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서울대학교 교재에서는 ‘보류’의 기능을 지닌 ‘하여튼’을 제시하고, 연세대학교 교재의 경우 ‘왜냐하면, 반대로, 그 밖에도’ 등이 나타나 있으며, 경희대학교 교재에서는 ‘결과’, ‘환연’, ‘예시’ 기능을 지닌 접속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용 접속표지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초급 한국어 학습자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한송화(2013)에서는 21세기 세종말뭉치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접속 부사가 담화 및 텍스트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 유형은 구어와 문어로, 텍스트 유형은 학술적 텍스트, 신문 텍스트, 소설 텍스트, 기타 텍스트로 분류하여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어에서는 ‘그-’형 접속 부사나 ‘이러하다, 하다, 아무튼, 어쨌든’ 등 문어보다 다양한 유형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며, 문어에서는 ‘그러나, 그렇지만, 즉, 하지만, 또한, 및, 따라서, 또, 그러므로’ 등의 접속 부사가 자주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어에서는 담화 구조에 따라 문어에서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도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양한 담화와 텍스트 유형에 따른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송현주·비시연(2014)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에서 학술적인 글의 텍스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접속 부사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주목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한 교육용 접속 부사 목록을 선정하고 사용 패턴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논문에 나타나는 고빈도, 고핵심 접속 부사는 ‘그래서, 그러므로, 다만, 따라서, 또, 또는, 또한, 및, 왜냐하면, 요컨대, 이른바, 즉, 한편, 혹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럼’은 주로 구어에서 쓰이지만, 학술 논문에서도 화제 도입이나 전환을 위해 사용된다.

김도연(2016)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접속 부사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설명문과 논설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접속 부사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접속 부사 사용 빈도는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공부하는 접속 부사와 동일하다. 기능에 따라서는 ‘대립’, ‘인과’의 접속 부사를 많이 사용하며, 문어에서도 구어성이 강한 것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접속 부사 사용 양상에만 집중되어 있어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접속 부사 사용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

한송화(2016)에서는 초급에서 고급 수준까지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자유 작문과 시험 작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서 사용된 접속 부사의 빈도는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많았으며,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또’ 등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모두 고빈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외에 학습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중급 학습자는 초급 수준에 비하여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등의 다양한 접속 부사를 활용하며, 출신 언어권에 따라서는 일본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 접속 부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류율은 ‘또는, 게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그런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그리고, 왜냐하면, 하지만, 또, 또한’ 등은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류선숙(2017)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서 산출한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접속 부사의 유형 및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작문 말뭉치에서 전체 품사 중 접속 부사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어 자료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고급 학습

자들은 초·중급 학습자보다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하지만, 그런데’ 등 다양한 유형의 접속 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는 제한적인 유형만을 사용하며,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접속 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하여 접속 부사의 적절한 용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역초(2017)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12권을 바탕으로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어 교재에 사용된 접속 부사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등은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서평(2019a, b)는 공통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연구이다. 이 가운데 서평(2019a)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 응시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의 경우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용 유형은 증가하지만, 사용 비율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고급 학습자는 접속 부사보다 연결어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초·중급 학습자는 ‘나열’, ‘인과’, ‘선택’ 관계에 연결어미보다 접속 부사를 더욱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평(2019b)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접속 부사의 오류 양상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형별로 오류 양상은 ‘다만, 그리하여, 또는, 한편, 그래서, 따라서’ 등의 접속 부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급 단계가 고급 단계보다 접속 부사의 사용 빈도는 낮지만, 오히려 오류율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의 경우 고급 학습자들의 지나친 사용으로 중급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높았다.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인과’, ‘대립-양보’ 관계는 중·고급 단계에서 ‘인과, 대립-양보, 전환’ 관계 접속 부사는 중급에서, 고급에서는 ‘첨가, 선택, 조건’ 관계 접속 부사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의미가 유사한 접속 부사를 학습자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접속 부사의 유형과 의미 관계에 따른 오류 양상 및 그 원인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접속 부사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접속 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접속 부사의 유형과 의미를 구별하여 그 사용 양상을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 유형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접속 부사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서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어 접속표지와 중국어 접속표지를 대조한 연구는 연동숙(2005)와 진영민(2012) 등이 있다. 연동숙(2005)에서는 한·중·일 공동 역사 부교재를 대상으로 실제 텍스트에서 결속적 접속표지의 개념과 유형 및 관계 등을 제시하며, 두 언어의 접속표지의 사용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텍스트에서 모두 순접 관계가 많이 일어났다. 또한, 한국어 텍스트에서 주로 연결어미의 유표적 접속표지이나 보조사 ‘-도’가 많이 사용되고, 중국어 텍스트의 경우는 접속 부사가 자주 쓰인다고 하였다. 진영민(2012)는 중국어와 한국어 접속표지의 수와 위치, 의미 관계를 따라 문어 텍스트에서 각각의 접속표지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살펴본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이남경(2008)은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에서 접속 부사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의 텍스트성⁶⁾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텍스트 안에서 접속 부사의 역할, 기능 또는 특성을 분석하였고 접속 부사의 교육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접속 부사는 7가지 텍스트성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텍스트적인 요소라고 정의하였고 접속 부사의 기능은 ‘문장 연결체’와 ‘맥락 구성체’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접속 부사의 교육 방법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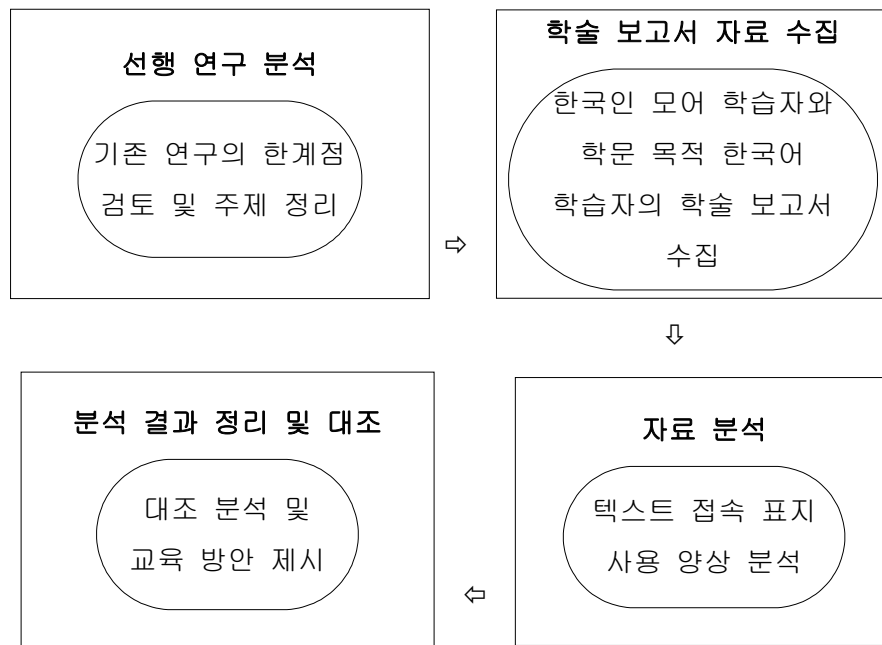
이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온 접속표지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하는 연구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이론적 논의에서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뿐 아니라 그 사용 양상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한국어 교재나 학술 논문을 위주로 접속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텍스트 자료에 나타난 유사한 접속표지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술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

6) 이남경(2008)에서는 “모든 발화를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성(textuality)을 갖춘 것’을 텍스트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텍스트 성은 ‘결속구조, 응집성, 의도성, 수용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7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들이 쓰기 과정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유사한 접속표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술 보고서에 나타나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접속표지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분석’, ‘학술 보고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분석 결과 정리 및 대조’의 네 가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절차 및 각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절차 도식화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 후, 필요한 자료 텍스트의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정리한 다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접속 표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및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 형태, 의미 관계에 따른 유형 및 용법 등의 특성과 함께 교육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술 보고서 텍스트에서 나타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할 표본 자료를 수집한다. 학술 보고서는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도 한국인 모어 학습자와 동등하게 학습 과정에서 자주 작성해야 하는 학술 텍스트에 해당한다. 대학교를 학술 공동체라고 간주한다면, 학술 보고서는 학위 논문, 학술 논문보다는 제약이 덜하고, 기초적인 성격이 강한 학술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 각각 논문 지도나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학술 보고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작성자의 글쓰기 수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술 보고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술 보고서의 장르적 특성 및 작성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선정한 학술 보고서는 총 120편으로, 균질적인 텍스트 분석 및 대조를 위하여 대학 3~4학년 한국인 모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 60편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 60편을 각각 수집하였다. 이들 텍스트는 경영학, 국어국문학, 건축학, 신문방송학 등 여러 전공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설명·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로 분류될 만큼 다양성이 확보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전체 사용 빈도, 의미 관계에 따른 접속표지의 사용 양상 또한 텍스트 유형에 따른 접속표지의 사용 양상의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셋째, 수집한 자료의 양적, 질적 분석을 시행한다. 양적 분석에서는 전체 텍스트 가운데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빈도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질적 분석에서는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가 특정한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용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에 반영한다. 이는 단지 학술 보고서에 사용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일반적인 사용 양상을 고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 좋은 글을 쓰는 데에는 정확한 어휘 및 문법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텍스트의 맥락에 맞게, 담화 공동체에 용인되는 표현을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교 수업이라는 담화 공동체에 통용되는 학술 보고서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텍스트 접속 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논의 전개 방식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 및 특징을 살피고, 초기에 담화 표지의 일종으로 논의되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담화 표지와 텍스트 접속 표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그다음에는 학술 보고서의 개념 및 장르적 특징을 살피고, 세부적인 특징에 따라 어떠한 유형으로 나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학술 보고서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에 기대어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 나타나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오류 양상을 고찰하도록 한다. 그다음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교육 내용 및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제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과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다음 학술 보고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접속 표지가 그간 접속 부사나 담화 표지의 일종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과 구별되는 텍스트 접속 표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 보고서의 장르적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과 유형

2.1.1.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 간 접속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에 기여하는 언어 형식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화 표지나 텍스트 구조 표지(text-structure marker)와 유사하다. 그러나 앞의 정의만으로는 세 언어 형식이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담화 표지와 텍스트 구조 표지,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들 언어 형식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텍스트 접속 표지의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다.

Schiffrin(1987)에 따르면, 담화 표지는 화행이나 문장 또는 그보다 작은 언어 단위를 묶어주면서 담화의 선후 의존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는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위한 선택적 장치이다(장범 2012:12). 한편 Fraser(1990)에서는 발화와 발화 또는 발화와 담화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Ameka(1992)에서는 문법 범주라기보다 일종의 기능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선행하는 발화 단위에 이어지는 담화를 서로 관련짓는 표지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문법 범주에서 벗어나 담화의 응집성(cohesion)을 이루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chiffrin(1987)에서는 ‘화행이나 문장’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담화 표지가 구어와 문어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⁷⁾, 나머지 연

구에서는 ‘발화 단위의 결속’이라는 점에서 구어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⁸⁾

텍스트 구조 표지의 개념 또한 담화 표지와 마찬가지로 김봉순(1995), 이효인(2005), 염혜경(2010)에서는 공통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지 않으며, 텍스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구조 표지는 텍스트 생산자가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개별 텍스트 간의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담화 표지와 텍스트구조 표지는 담화 또는 텍스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완결성을 획득하게 하는 언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⁹⁾ 그러나 담화 표지가 지닌 결속 기능은 대표적으로 전영옥(2002)에서 제시된 ‘화제와 화제 결속’, ‘화자와 화제 결속’, ‘화자와 청자 결속’으로 분류되어 있다¹⁰⁾. 이 가운데 ‘화자와 화제 결속’, ‘화자와 청자 결속’은 화자와 청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어 편향적인 분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담화 표지와 텍스트 구조 표지가 각자 지닌 세부적인 기능이 서로 동일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결속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영옥(2002)에 따르면 담화는 본질적으로 음성뿐 아니라 문자로 실현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담화 표지의 범위는 구어와 문어 모두를 아우른다고 할 것이다. 즉 텍

7) 이는 전영옥(2002)에서 발화 간 연결 구조는 구어 담화로, 문장 간 연결 구조는 문어 담화로 간주한 사실과도 상통한다. 한편 박영순(2004), 이숙의·김진수(2008)에서는 담화 표지에 대한 정의 가운데 문장과 담화를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문장은 문어의 영역으로, 담화는 구어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8) 이와 달리 김정남(2008)은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에서 담화 표지란 무엇인가를 정의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 표지를 특정 어휘 요소 또는 특정 문법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텍스트 속에서 부분 텍스트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텍스트 내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며, 어떠한 의미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텍스트 내적으로 긴밀성을 보강해주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9) 그러나 조진수·노유경·주세형(2010:2)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담화의 결속을 돕는 언어 형식을 담화 표지라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텍스트 구조 표지’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담화 표지와 텍스트 구조 표지를 구분하고 있다.

10) 전영옥(2002)에서는 각 기능에서 세분되는 하위 기능을 ‘화제와 화제 결속’은 ‘화제 시작’, ‘화제 전환’, ‘화제 연결’, ‘화제 마무리’로, ‘화제와 화제 결속’의 기능은 ‘시간 벌기’, ‘열거하며 넘어가기’, ‘주장 약화하기’, ‘주장 강조하기’, ‘디딤말 기능’, ‘수정하기’, ‘부정적인 태도 표현하기’로, ‘화자와 청자 결속’의 기능은 ‘주의 집중’, ‘대화 진행 조정하기’, ‘발언권 가져오기’, ‘정중하게 말하기’, ‘호응하기’로 나누었다.

스트구조 표지는 담화 표지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김봉순(1995)에서는 텍스트 구조가 복잡할수록 독자가 추론해야 할 문맥적 관계의 양이 많아지는데, 텍스트 구조 표지는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구조 표지는 독자로 하여금 개별 텍스트에 내재된 명제 내용 간의 관계를 예측, 확인하게 하고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독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텍스트 구조 표지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어 텍스트 구조 표지를 유형화한 연구는 김봉순(2000), 이효인(2005), 양태영(2010), 염해경(2012)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텍스트 명제 내용 간 의미 관계의 유형 및 그에 따른 기능을 바탕으로 텍스트 구조 표지를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김봉순(2000)에서는 ‘상술 관계’, ‘나열 관계’, ‘비교/대조’, ‘인과 관계’, ‘문해 관계’로 나누었다. 한편 이효인(2005)에서는 구어/문어 텍스트에 따라 각각 ‘미시 텍스트 구조 표지’와 ‘거시 텍스트 구조 표지’로 유형화하고, 텍스트의 의미 관계에 따라 미시 텍스트 구조 표지는 ‘시간, 나열, 조건, 인과, 배경, 대조, 선택, 목적, 양보’ 표지로, 거시 텍스트 구조 표지는 ‘대상, 관계, 개관’ 표지로 세분화하였다. 양태영(2010), 염해경(2012)에서는 김봉순(2000)의 분류 체계에 몇 가지 유형을 추가하였다. 다음은 이상으로 설명한 선행 연구에서의 텍스트 구조 표지 분류 체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텍스트 구조 표지의 유형

관련 연구	세부 유형
김봉순 (2000)	핵심-부가(상술)
	원소-원소(나열)
	대응점-대응점(비교/대조)
	원인-결과(인과)
	문제-해결(반응)

이효인 (2005)	미시 텍스트 구조 표지 (구어)	시간 관계 표지	계기 관계 표지	
			동시 관계 표지	
			시간적 인접 관계 표지	
			전이 관계 표지	
		나열 관계 표지	-	
		조건 관계 표지	-	
		인과 관계 표지	-	
		배경 관계 표지	-	
		대조 관계 표지	-	
		선택 관계 표지	-	
	목적 관계 표지	-		
	양보 관계 표지	-		
	거시 텍스트 구조 표지 (문어)	대상 표지	지시형 대상 표지	-
			제시형 대상 표지	-
			반복형 대상 표지	전체 반복형 대상 표지
				부분 반복형 대상 표지
				유사 반복형 대상 표지
		복합형 대상 표지		
		관계 표지	핵심-부가 관계 표지	-
			나열 관계 표지	-
대응 관계 표지			-	
인과 관계 표지			-	
문제-해결 관계 표지	-			
개관 표지	지시형 개관 표지	-		
	제시형 개관 표지	-		
	반복형 개관 표지	-		

양태영 (2010)	나열 구조 표지
	강조 구조 표지
	전환 구조 표지
	인과 구조 표지
	예시-정의 구조 표지
	대조-비교 구조 표지
	포괄-분류 구조 표지
염해경 (2012)	열거 구조 표지
	시간의 순서 구조 표지
	비교 구조 표지
	대조 구조 표지
	원인과 결과 구조 표지
	문제와 해결 구조 표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텍스트 구조 표지는 텍스트 내용 간의 여러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텍스트 접속 표지 또한 그와 상통하는 것으로, 텍스트 구조 표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접속 관계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영교(2018)에 따르면 접속 관계는 ‘유표적 접속’ 과 ‘무표적 접속’ 으로 나뉜다. 유표적 접속이란 접속 어미나 접속 부사 등의 언어적 요소로 실현되는 접속 관계를 의미한다. 한편 무표적 접속은 유표적 접속과 달리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문맥적 관계에 따라 접속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유표적 접속은 접속 대상에 따라 단어 간 접속, 구절 간 접속, 문장 간 접속과 문단 간 접속 등 네 가지로 세분된다.¹¹⁾

또한, 텍스트 접속 표지는 그간 ‘접속 부사’ 와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속 부사를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에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 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함계임(2006)에서

11) 정영교(2018)에 따르면 유표적 접속의 형태로 단어 간 접속은 주로 접속 조사나 접속 부사를 사용하고, 구절 간 접속은 접속 어미나 접속 부사로 실현되고, 문장 간 접속은 접속 부사나 구절 표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단락 간 접속은 접속 부사나 구·절 표현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접속 부사는 접속 조사, 접속 어미, 구·절 표현보다 광범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사전의 정의를 따라 선행문과 후행문의 관계를 밝히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접속 부사는 단어 또는 문장의 연결이 중심이 되는 통사론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접속 대상 및 기능에 따라 ‘접속 부사’ 라는 용어 대신 ‘접속어(신지연, 2005)’, ‘텍스트 결속적 결속 표지(연동숙, 2005)’, ‘접속 표현(백승주, 2011)’, ‘응결 장치(cohesion devices, 서평, 2019)’ 로 연구되어 왔다. 앞에서 제시한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선행 연구의 용어에 대한 정리

관련 연구	사용 용어	정의
신지연(2005)	접속어	두 문장 사이를 이어 주는 일을 함으로써 선행문과 후행문의 긴밀성을 나타내는 단어
연동숙(2005)	텍스트 결속적 접속 표지	텍스트 분절문(Text segment) ¹²⁾ 의 경계를 넘어 텍스트 결속에 기여하는 접속 표지
백승주(2011)	접속 표현	텍스트 표층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는 문법적 의존 관계인 결속 구조(cohesion)를 결정하는 결속구조 장치
서평(2019)	응결장치	텍스트 속에 있는 언어 요소들을 연결함으로써 텍스트의 응결성 및 응집성을 이루는 언어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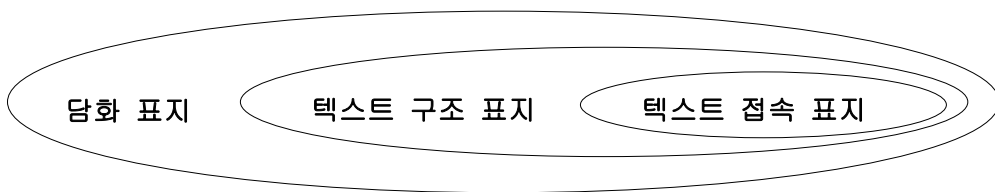
<표 4>를 살펴보면 각 연구마다 접속의 대상이 되는 언어 형식의 범위가 다르지만,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단어나 문장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단위에 해당하는 것도 연결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인 접속 표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연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접속어’, ‘접속 표현’ 은 접속 부사에 한정된 반면, ‘텍스트 결속적 접속 표지’에서는 접속 부사뿐 아니라 연결어미,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에 앞서, 다른 한편으로는’ 등과 같은 구절 표현까지를 포함한다. 이와

12) 연동숙(2005: 41)에 따르면 Brinker(1992)에서 언급한 ‘상대적인 자립성과 종결성의 특성’에 따라 ‘문장’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주요 동사와 그 동사의 지배를 받는 논항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응결장치’ 또한 연결어미, 부사, 수사, 구절 표현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그중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결장치는 연결어미와 접속 부사로 한정된다¹³⁾.

본 연구에서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언어 형식의 기능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범위를 접속 부사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에서 문장 이상의 단위를 연결할 때는 주로 접속 부사를 사용한다는 정영교(2018)과 접속 조사나 접속 어미, 응결장치와 달리 접속 부사는 구·절, 문장, 단락의 언어 단위에도 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서평(2019a)에서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안에서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형식’이라는 관점에 따라 접속의 텍스트구조 표지를 ‘텍스트 접속 표지’라 명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 내에서 좁게는 단어나 구, 절, 문장에서 넓게는 단락이나 텍스트 전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언어 형식이다. 텍스트 접속 표지는 문어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어와 문어를 모두 포괄하는 담화 표지와 구별된다. 또한, 텍스트 전체적인 유기적 구조 형성이라는 결과론적 명명인 텍스트 구조 표지와 달리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 간 접속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명칭에 해당한다. 그리고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 구조 표지 가운데 유표적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 형식 가운데 접속 부사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의 내용을 따라 담화 표지, 텍스트 구조 표지, 텍스트 접속 표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담화 표지, 텍스트 구조 표지, 텍스트 접속 표지의 관계

13) 서평(2019a)에서는 Halliday & Hasan(1976)에서의 유형화에 기대어 ‘지시, 대응, 접속, 생략, 어휘’의 응결 장치로 분류하였다.

2.1.2.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 및 유형

2.1.2.1.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에서 필수적인 언어 요소임에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개별 표지의 개념과 기능을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택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접속 표지는 기존에 담화 표지의 일종 또는 접속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은 주로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우선 접속 부사의 전반적인 기능은 서반석(2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반석(2018)에서는 접속 부사의 기능을 ‘접속’, ‘수식’의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었으며, 이 가운데 접속의 기능은 접속 부사뿐 아니라 접속 조사, 접속 어미 또한 지닌다고 하였다. 특히 접속 부사는 접속 조사나 접속 어미보다 연결 대상이 훨씬 다양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다음은 접속 부사의 접속 기능을 보여주는 예이다.

(1) 접속 부사의 접속 기능

ㄱ. 직녀는 밥을 먹었다. + 견우는 빵을 먹었다. (서반석, 2018: 16)

- a. 직녀는 밥을 먹었고, 견우는 빵을 먹었다.
- b. 직녀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견우는 빵을 먹었다.

ㄴ.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철수는 바나나를 먹었다.

- a. 철수는 사과와 바나나를 먹었다.
- b. 철수는 사과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다.

(1ㄱ, ㄴ)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두 문장으로, 이들 문장은 연결 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다. (1ㄱa)에서는 선행문의 서술어 종결 어미가 연결어미 ‘-고’ 로써,

(1ㄴ-a)에서는 같은 명사 부류의 목적어 ‘사과’와 ‘바나나’ 사이에 접속 조사 ‘와’ 로써 접속이 이루어졌다. 한편 (1ㄴb, ㄴb)은 접속 부사 ‘그리고’ 를 사용하여 선행문과 후행문을 연결한 예이지만, (1ㄴb)의 경우 선행문의 주어와 서술어가 후행문과 같기 때문에 선행문의 서술어와 후행문의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그리고’ 가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1ㄴb)와 구별된다.

한편 서반석(2018)에서 제시한 접속 부사의 기능 가운데 수식 기능은 접속 기능을 넘어 선행하는 내용과 후행하는 내용이 접속 부사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문맥적 정보가 추가되는 것을 뜻한다.¹⁴⁾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서반석, 2018: 20)

- ㄱ. 나는 제안을 내놓았고 그래서 가결이 되었다.
- ㄴ. 나는 제안을 내놓았고 가결이 되었다.

(2ㄱ, ㄴ)은 절 접속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2ㄱ)에서는 ‘내가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가결이 되었다’ 라 해석할 수 있는 한편, (2ㄴ)에서는 ‘내가 내놓은 제안은 가결되었지만, 그것은 제안과 상관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접속 부사 ‘그래서’ 를 통해 후행문과 선행문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재영 외(2008), 전영교(2018)에서는 문법론에서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이 교육 측면에서도 학습자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영교(2018)에서는 접속 부사가 수식의 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접속 기능을 접속 부사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수식 기능은 접속 기능과 함께 나타나는 부차적인 기능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의 기능 가운데 접속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별 접속 부사의 접속 기능을 분석한 연구는 김미선(2001), 장기열(2003) 등이 있다.

김미선(2001)은 ‘그러나’ 류 접속 부사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나’ 류 접속 부사의 기능을 문맥 연결, 수식과 간투어(間投語)로서의 기능으로

14) 해당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은 후행문의 외연적 성질과 내포적 의미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러나’ 류 접속 부사는 구, 절, 문장 간 접속뿐 아니라 문단 간 접속도 가능하며, 부사로서의 ‘수식·한정’ 특성에 따라 문장 내 서술어를 한정하거나 후행하는 표현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장기열(2003)에서는 접속 부사를 선행하는 문장 또는 문단을 요약함으로써 후행하는 내용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를 ‘그-’ 형¹⁵⁾과 ‘또한, 또는, 혹은, 한편’ 등의 일반 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고, ‘그-’ 형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였다. 아래에 제시한 표는 이 연구에서 의미 관계에 따른 ‘그-’ 형 접속 부사의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5> ‘그-’ 형 접속 부사의 기능(장기열 2003: 192)

의미 형태	계기	동시	이유	전제	조건	대립	나열	설명	전환	강조	목적	기대 부정
그리고	○	○	○	○	○	○	○	○	○	×	×	×
그러자	×	○	○	×	○	○	×	○	○	×	×	×
그러면서	○	○	×	×	○	○	×	○	○	×	×	×
그리고서	○	×	×	×	×	×	×	×	×	×	×	×
그러며	×	○	×	×	×	×	○	×	×	×	×	×
그러니	○	×	○	×	×	×	×	×	×	×	×	×
그러니까	○	×	○	×	×	×	×	×	×	×	×	×
그래서	○	×	○	○	×	×	×	×	×	×	○	×
그러면	×	×	×	○	○	×	×	×	×	×	×	×
그러거든	×	×	×	○	×	×	×	×	×	×	×	×
그러다가	×	×	×	×	○	×	×	×	○	○	×	×

15)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그-’ 형 접속 부사는 ‘그리고, 그러자, 그러며, 그러면서, 그리고서, 그러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러거든, 그래야, 그러다가,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되, 그러려고, 그러고자, 그러도록’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면’ 이 ‘그래야’, ‘그래도’, ‘그러도록’ 을 포괄하고 ‘조건’ 의 의미 기능을 지닌 기본 접속 부사라고 하였다. 또한 ‘목적’, ‘의도’, ‘예정’, ‘소망’ 따위는 ‘그래서’ 가 기본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고자’ 가 모두 ‘그래서’ 의 의미 기능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x	x	x	x	x	○	○	x	○	○	x	○
그렇지만	x	x	x	x	x	○	○	x	x	x	x	○

<표 5>에 따르면 ‘그리고’ 는 다른 접속 부사에 비하여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열(2003: 193)에서 ‘그리고’ 는 모든 접속 부사가 관련하는 표면의 통사 구조 및 의미 기능을 포괄하는 접속 부사의 상위개념 형태소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리고’ 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장기열(2003) 외에도 ‘그리고’ 의 의미 기능을 주제로 논의한 연구는 김미선(1998), 차윤정(2002), 주향아(2019) 등이 있다. 김미선(1998)에서는 ‘그리고’ 의 의미를 ‘기본 의미’ 와 ‘문맥 의미’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본 의미는 ‘나열’, ‘계기’, ‘동시’, 문맥 의미는 ‘대립’, ‘양보’, ‘전환’ 으로 나누었다. 차윤정(2002)에서는 ‘공간 나열’ 과 ‘계기 나열’ 의 기능이 있음을 설명한 한편, 주향아(2019)에서는 ‘나열’, ‘계기’, ‘동시’, ‘인과’, ‘부연’ 의 다섯 가지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그리고’ 의 의미 기능 분류

관련 연구	양보	전환	나열	계기	동시	선택	이유	대립	설명	강조	결과	부연
김미선(1998)	○	○	○	○	○			○				
차윤정(2002)			○	○								
장기열(2008)			○	○	○	○	○	○	○	○		
주향아(2019)			○	○	○		○					○

<표 6>과 같이 ‘그리고’ 의 의미 기능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나, ‘나열’, ‘계기’, ‘동시’ 기능만큼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접속 표지가 지닌 의미 기능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리

고’가 지닌 ‘나열’, ‘계기’, ‘동시’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나열 기능에 해당하는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ㄱ. 오늘의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은 주체성을 잃고 대중문화의 상업성만을 행해
채찍질을 한다. (주향아 2019:470)
- ㄴ. 광고는 해프닝적이라는 면에서는 현대의 그리고 미래의 인간들 성격에 부합된다.
(주향아 2019:470)
- ㄷ. 이것은 책이다. 그리고 저것은 핸드폰이다.
- ㄹ. 이 영상을 보고 평소 동양 예술에 관심이 없었던 나도 동양의 아름다움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조민환 강사는 <클라우드 게이트>를 소개하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서예에 관해 소개하였는데, 중국은 기교적인 측면을 강조한
‘서법’, 한국은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서예’, 그리고 일본은 수양을 강
조한 ‘서도’라고 말씀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한 장 중심의 서예에서 탈피한 쉬
빙(徐冰)의 신 영문 서예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나열은 선행문과 후행문 병렬적으로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독립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대등 관계를 유지한다(김미선 1998:39). (3ㄱ)는 명사 간, (3ㄴ)에서는 명사구 간, (3ㄷ)에서는 문장 간 접속을 보여주고 있으며, (3ㄹ)에서는 구와 문장 접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에 제시된 ‘그리고’의 용례는 단어에서 구, 절,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 단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다음으로 ‘그리고’의 ‘계기’와 ‘동시’의 기능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계기’와 ‘동시’는 선·후행문에 제시된 사건이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가에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계기의 기능은 선행 행위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른 행위가 이어지거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¹⁷⁾ ‘계기’는 ‘나열’의 대등 관계에 비해 소속 접속 관계로 문장을 연결한다는 특징이 있

16) 주향아(2019)에서는 절이나 문장 접속의 ‘나열’과 문단 간 연결에서의 ‘나열’은 층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절이나 문장 접속의 ‘나열’은 단순히 사태 간 나열이고 문단 간 실현되는 ‘나열’은 결속 단위가 텍스트로 확장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 문장 간에 실현된 ‘나열’과 문단 간에 실현된 ‘나열’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7) 계기 기능의 ‘그리고’는 ‘그러고 나서(그렇게 하고 나서)’로 대치가 가능하며, 이때 ‘그리고’의 계기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김미선 1998:42). ‘그리고’의 계기와 동시의 기능에 대한 용례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4) ㄱ. 우리들은 술을 마신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장기열 2003:182)

ㄴ. 그녀는 이 편지를 거실의 벽난로 위에 놓고 집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는 풀이 돋아나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주향아 2019:471)

ㄷ. 나는 거기서 군대를 막 졸업한 복학생인 한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8년째 살고 있다. (김미선 1993:42)

ㄹ. 비가 온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 (장기열 2003:182)

(4ㄱ)의 ‘그리고’는 계기와 동시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계기와 동시의 기능을 함께 지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들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반면, 계기의 기능만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면 ‘우리들은 술을 마시고 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는 행위와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ㄴ, ㄷ)은 계기의 기능만을 지니는 예로, 두 예문 모두 선행 행위가 끝난 후에 후행 행위가 일어났다. (4ㄹ)에서는 동시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가 오면서 바람도 분다.’로 해석할 수 있다.

2.1.2.2. 텍스트 접속 표지의 유형

김미선(2001:44)에서는 텍스트 접속 표지는 선행하는 내용과 후행하는 내용 사이에 의미 관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텍스트 접속 표지를 유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유형별 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개별 의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기능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목록을 제시하기로 한다.

텍스트 접속 표지를 선·후행 내용의 의미 관계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로는 김미선(2001), 서반석(2018), 정영교(201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텍스트 접속 표지의 관계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7> 의미 관계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목록

관련 연구	의미 관계 유형		텍스트 접속 표지 목록
김미선 (2001:45)	시간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자
	대립 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원인 관계		그래서,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조건 관계		그러면, 그래야
	전환 관계		그런데, 그러다가
	양보 관계		그래도
서반석 (2018: 76~77)	인과 관계	결과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귀결	결국
		원인	왜냐하면
	시간 관계	동시	그동안, 그러면서, 순간, 이때/그때
		순차	그러다가, 그러더니, 그러자, 급기야, 이리하여/그리하여, 이후
	상술 관계	환언	그러니까, 말하자면, 즉
		예시	가령, 예컨대, 이를테면
첨가		그리고, 대신, 또, 또는, 또한, 아울러, 요컨대, 혹은	

	대립 관계		강화	게다가, 더구나, 더군다나, 더욱이, 도리어, 심지어, 오히려, 특히, 하물며
			역접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반면, 하지만
			양보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예외	다만, 단
			중단	그나저나, 그러나저러나,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데, ‘아무튼’ 류, 한편
정영교 (2018)	상하 관계	보충 표지	구체적 설명	구체적으로, 특히
			특정 용어 설명	이때, 여기서
			이면의 사실 설명	사실, 실제로(도)
		환언 표지	-	곧,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자면, 즉 등
		예시 표지	-	예컨대, 이를테면, 한 예로 등
	동등 관계	나열 표지	단순 나열	그리고, 또, 또한, 이외에도
			순서 나열	○째, ○ 번째, 먼저, 우선, 다음으로, 다음 단계로, 이후, 끝으로, 마지막으로
			태도 나열	더구나, 더군다나, 더 나아가, 더욱이, 마찬가지로, 물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립 표지	항목 비교·대조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반대로, 반면(에), 하지만
			지적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태도 대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단
		인과 표지	원인	왜냐하면
			결과	결국,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따라서 등
		전환 표지	-	그런데, 한편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텍스트 접속 표지를 유형화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미선(2001), 서반석(2018)에서는 전후 문맥의 시간적인 순서 또는 인과 관계나 선행하는 내용을 후행하는 내용으로써 풀어나가는 텍스트의 의미 전개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류라 할 수 있다. 반면 정영교(2018)에서는 두 문맥 사이의 대칭성, 즉 선행하는 문맥이 지시하는 정보의 범위가 후행하는 것보다 넓은가, 또는 동등한가를 전자보다 먼저 고려한 유형화에 해당한다.

이상의 유형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내용 전개에 따른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를 분류한 김미선(2001), 서반석(2018)에서의 관점을 따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러 의미 관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를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때에는 ‘상하 관계’ 또는 ‘동등 관계’와 같은 문맥 간 대칭성에 입각한 것보다 텍스트 진행에서의 여러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활용할 텍스트 접속 표지의 의미 관계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5) ㄱ. 상술 관계: 환언, 첨가, 예시
 - ㄴ. 인과 관계: 원인, 결과
 - ㄷ. 대립 관계: 대립, 양보
 - ㄹ. 나열 관계: 단순 나열, 순서 나열

먼저 상술 관계는 선행 요소가 상위 구조로서 핵심 내용 의미를 나타내며, 후행 요소는 하위 구조로서 선행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서술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 유형에서는 ‘환언’, ‘첨가’, ‘예시’의 기능을 지닌 텍스트 접속 표지가 있으며, 이들 표지는 독자로 하여금 선행 요소의 주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술 관계의 텍스트 접속 표지 가운데 환언 표지는 후행 내용이 핵심 명제인 선행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거나 더 상세하게 선행 내용을 설명할 때 나타내는 접속 표지이다. 첨가 표지는 후행문의 정보를 선행 내용에 덧붙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속 표지이다. 한편 예시 표지는 선행 내용의 핵심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상술 관계를 밝히는 접속 표지이다. 다음은 앞에서 소개한 세

기능에 따른 텍스트 접속 표지의 용례를 학술 보고서 텍스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 (6) ㄱ. [① 중국의 학문들 중 주자학과 양명학과 관련한 서체의 차이도 흥미로웠는데 주자에 의해 만들어진 주자학은 기질의 성에 의한 인간의 개별적 차별을 전제로 하여 본연의 성을 완전하게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 **즉** [② 사회의 봉건적 신분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학문인데 이를 따르던 학자들의 필체는 올곧고 뚜렷한 필체를 가졌었고 그와 반대 대는 시상인 양명학을 따르던 학자들의 필체는 초서체를 보는 것같이 자유분방한 글씨체를 가졌었다.]
- ㄴ. [① 강연을 듣기 전에는 단순히 중학생 때 미술시간에 배운 글을 쓰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였다.] [② 강연을 들으면서 서예라는 단어가 나라별로 다르게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③ 다양한 서예 작품들은 보여주셨고 그 중에서 김홍도의 ‘오수당’ 이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 ㄷ. [① 외래어는 국어에 수용되는 과정이 단일하지 않고 소리의 변화가 고유어나 한자어에 비해 빠르며, 또 외래어의 기원이 되는 외국어의 음운 체계가 국어와 달라 외국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국어가 무엇인지 통일되기 어려우므로 그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② 프랑스어 ‘encore’ 가 ‘앙코로, 양꼬로, 앙쿨, 앵쿨’로 나타난다든지, 영어 ‘badge’, ‘buzzer’, ‘chocolate’, ‘chance’ 등이 ‘배지, 뱃지, 뺏지’와 ‘버저, 부자, 부저’, ‘초콜릿, 초콜렛, 초콜렛, 쪄꼬렛’, ‘찬스, 찬스, 찬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6)에 제시된 예문 가운데 (6ㄱ)에서는 환언 표지 ‘즉’ 이, (6ㄴ, ㄷ)은 첨가 표지 ‘또’, ‘또한’ 이 각각 실현된 것이다. (6ㄷ)에서는 예시 표지 ‘예컨대’ 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ㄱ)에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서체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단으로, 인간의 개별적 차별을 전제로 하여 본연의 성을 완전하게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는 주자학의 특징이 (6ㄱ①)에 나타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6ㄱ②)에서는 주자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주자학자의 서체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즉’ 이 사용되었다.

(6ㄴ) 가운데 (6ㄴ①)에서는 강연을 듣기 전 화자가 그동안 서예를 어떻게 생각해 왔다가 나타나 있으며, (6ㄴ②)에서는 강연을 듣고 난 뒤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6ㄴ③)에서는 (6ㄴ②)에서의 내용에 강연에서 감상한 작품에 관한 것을

덧붙여 서술하고 있다. 즉 (6ㄴ②)과 (6ㄴ③)는 모두 강연을 듣고 난 뒤의 소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첨가의 의미인 ‘또한’을 통하여 두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6ㄴ)은 한국어 외래어 발음을 설명하는 문단이다. (6ㄴ①)에서는 외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래어의 표면형이 제각각인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ㄴ②)는 그 예를 제시하는 문장으로, 두 문장 사이에 ‘예컨대’가 실현되어 선행문은 상위 명제이며, 후행문은 하위 명제라는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인과 관계는 문자 그대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과 표지는 곧 선·후행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 나타내는 접속 표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과 표지는 원인 표지와 결과 표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표지는 다음에 제시한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7) [① 철수는 오늘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② 점심에 과식했기 때문이다.]

(7)에서는 철수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제시된 (7①)과 그에 대한 원인인 (7②) 사이에 원인 표지 ‘왜냐하면¹⁸⁾’이 실현되어 있다.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원인-결과’의 형식을 취하는 결과 표지와는 달리, 원인 표지는 (7)와 같이 ‘왜냐하면’을 경계로 ‘결과-원인’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원인 표지가 인과 관계 표지로 사용될 때는 선행 위치에서 결과를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8) ‘왜냐하면’은 원인을 나타내는 텍스트 접속 표지이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어떠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는 표지의 기능도 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윗사람이나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가게’, ‘저희 학교’ 등과 같이 ‘우리’ 대신 ‘저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②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로 써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나라’로 써야 한다.] **왜냐하면** [③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할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한 예문에 따르면 ‘왜냐하면’을 경계로 선행문인 ②에서는 ‘저희 나라’는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올바른 쓰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③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과 표지는 후행하는 내용이 원인에 대한 결과임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닌다. 박건숙(2020)에 따르면 ‘그래서’가 가장 대표적인 결과 표지에 해당한다. ‘그래서’는 의미적으로 ‘따라서’와 대응되기는 하나, 서로 차이가 있다. 이를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8) ㄱ.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쓴맛을 꺼린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관계가 있다. 식물 중에는 독성이 있어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 그런데 [① 이런 독이 있는 식물은 보통 쓴맛이 난다.] *따라서/그래서 [②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쓴맛이 나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기고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박건숙, 2020:1226)

ㄴ. 상품 중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이 있다. 밀이나 옥수수과 같은 곡류가 그러한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곡류는 빵이나 국수를 만드는 데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그래서 [② 곡류의 가격이 오르면 빵이나 국수의 가격도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박건숙 2020:1226)

(8ㄱ)은 미각 가운데 쓴맛에 관한 내용을, (8ㄴ)은 상품의 물가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룬 학술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8ㄱ)에서 (8ㄱ②)는 대체로 독이 있는 식물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쓴맛이 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보다 ‘그래서’가 훨씬 자연스럽다. (8ㄴ) 가운데 (8ㄴ①)에서 곡류는 빵이나 국수를 만든 원재료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한편, (8ㄴ②)에서는 선행 내용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보다 ‘따라서’가 더 적절하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의 접속에서 주로 사용되고, ‘따라서’는 이유와 결론의 접속에서 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¹⁹⁾.

대립 관계는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뜻하며, 대립 표지와 양보 표지로 나뉜다. 대립 표지는 서로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두 문맥 내용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양보 표지는 양보의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양보는 함계임(2006)에 따르면 대립의 한 형태로, 선행문에 대한 기대나 예측을 후행문에서 부정하

19) 그 외에도 박건숙(2020)에서 ‘그래서’는 구어체와 문어체에 모두 사용되는 반면 ‘따라서’는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뜻한다. 대립 표지와 양보 표지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9) ㄱ. [① 존경의 표현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이고자 할 경우 서술어에 ‘-시-’를 넣어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② ‘-시-’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용언 마다 ‘-시-’를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ㄴ. 언어예절이란 말 그대로 ‘언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가리키는 말로 말과 글로 소통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한다. [① 예절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거나 어긴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② 예절은 일종의 약속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9ㄱ) 가운데 (9ㄱ①)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일반적인 쓰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반면, (9ㄱ②)에서는 ‘-시-’의 과도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선행하는 내용과 후행하는 내용이 상반된다. 따라서 두 내용 사이에 ‘그러나’가 대립 표지로서 실현되었다. (9ㄴ)은 ‘하지만’이 양보 표지로 실현된 예문이다. 이 예문에서 (9ㄴ①)에 따르면 ‘예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을 지키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9ㄴ②)에서는 선행문에서의 예측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마지막으로 나열 관계는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관계가 병렬적일 때, 주제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열거하는 것이다. 나열 표지는 단순 나열 표지와 순서 나열 표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0) [① 서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먼저** [② 글자를 씬으로서 점과 선의 구성과 비례 균형에 따라 공간미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③ 자연의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글자라는 추상적인 것을 소재로 한다.]

20) ‘그러나’와 ‘하지만’은 양보와 대조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진정은(2006: 76)에서는 두 표지를 같은 문장에 사용하였을 때, ‘그러나’는 대조 의미가 강하여 단정적인 느낌이 드는 반면, ‘하지만’은 완곡하고 공손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10)에서는 서예의 발달 과정 및 특징을 다룬 학술 보고서의 일부로, (10①)은 서예의 특징을 나열하겠다는 거시 명제하에 순서 나열 표지인 ‘먼저’가 후행함으로써 (10②)와 나열 관계를 맺는다. 또한, 서예의 특징 가운데 (10②)에 제시된 것과 다른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나열 표지인 ‘그리고’가 실현되어 (10)의 세 문장이 서로 나열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유형을 선행 연구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텍스트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미 관계의 양상에 비중을 두어 ‘상술 관계’, ‘인과 관계’, ‘대립 관계’, ‘나열 관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 따른 하위 유형을 분석하고, 학술 보고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유형화는 앞으로 학술 보고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텍스트 접속 표지를 분석하는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2.2. 학술 보고서의 장르적 특성

2.2.1. 학술 보고서의 개념 및 특성

여기에서는 학술 보고서의 개념 및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술 보고서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이전에 보고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사전적으로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를 뜻하는데, 최웅(2008)에 따르면 보고서는 연구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조사·답사·관측·실험·채집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한 글이다. 권재술 외(2011)에서는 보고서를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관계된 교수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글이라고 하였다.

한편 보고서와 대응되는 것으로는 리포트(report)가 있다. 리포트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개인이 어떤 주제를 정하여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뜻한다. 리포트에 관하여 최웅(2008), 최윤곤(2009)에서는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학기 중 또는 학기 말에 담당 교수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논문 형식의 글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리포트는 보고서와 유사한 개념이며,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춘 글로서 학술적 텍스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논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고서는 학술적인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그 내용과 결과를 논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일종의 소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리포트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술 보고서의 개념과 동일하며, 학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문제 해결 능력, 자료 해석 및 학습 능력, 언어 활용 능력,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²¹⁾ 특히 대학원생에게는 학위 논문 또는

21) 먼저 문제 해결 능력은 학술 보고서 작성 과정 자체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자료의 해석 및 학습 능력에서는 연구 주제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하여 여러 형식의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해석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학문적 이론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학술 텍스트는 일반적인 텍스트와는 달리 논리적 표현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논리적 사고 및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 보고서는 쓰기 활동이라는 점에서 쓰기 능력 및 문어에서의 정제된 표현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활용 능력의 확장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 논문 작성 능력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학술 보고서는 대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학술 보고서의 특징으로는 독창성, 정확성, 무일탈성, 객관성, 검증성, 용이성이 있다(최윤곤:2009). 독창성은 보고서의 구성 방식, 문체 등의 형식적 차원뿐 아니라 연구 내용에서도 작성자마다 연구 주제에 대한 견해가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확성은 연구 주제의 논지를 풀어나가는 데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일탈성이 없어야 한다. 일탈성이란 보고서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편견이나 오해(誤解)에서 비롯된다. 이는 연구 주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사적 감정을 배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객관성과 검증성은 무일탈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연구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연구 내용의 증명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한편 용이성은 이해의 용이성이라 할 수 있는바, 제한된 분량에 주제 의식이 명확하고 전체적인 짜임새가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가독성과도 연결된다.

2.2.2 학술 보고서의 유형

학술 보고서는 전공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교수자에게 제출하는 기초적인 성격의 학술 텍스트에 해당한다. 또한, 학술 보고서는 전공과 연구 내용 및 텍스트의 형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술 보고서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 보고서의 유형은 김정남(2008), 최선미(2008), 김성수 외(2013), 김양선 외(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학술 보고서의 유형을 하나의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학술 보고서의 유형

관련 연구	유형
김정남(2008)	실험 보고서, 조사 보고서, 문헌 요약 보고서, 견해 논증 보고서
최선미(2008)	설명 보고서, 조사 보고서, 감상 보고서, 요약 보고서
김성수(2013)	실험·실습 보고서, 관찰 보고서, 답사 보고서
김양선 외(2016)	독서 보고서, 실험 보고서, 답사 보고서, 인터뷰 보고서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고서의 기술 대상인 연구의 유형에 따라 학술 보고서는 3~4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실험 보고서(김정남, 2008, 김양선 외, 2016), 실험·실습 보고서(김성수, 2013)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과 같이 실험 또는 실습 커리큘럼이 포함된 전공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찰 보고서(김성수, 2013), 답사 보고서(김성수, 2013, 김양선 외, 2016) 또한 전공 특수성을 지닌 유형으로, 대부분 사회학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인터뷰 보고서(김양선 외, 2016) 또한 특정 전공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보고서(김정남, 2008, 최선미, 2008)의 경우 작성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형식 및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독서 보고서(김양선 외, 2016)는 감상 보고서(최선미, 2008)의 하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문헌 요약 보고서(김정남, 2008)과 요약 보고서(최선미, 2008)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학술 보고서 텍스트 유형을 설명 보고서, 논증 보고서²²⁾,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각 학술 보고서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명 보고서는 작성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에 따른 주관적인 서술이 아닌, 문제에 대해 완전한 객관적인 태도로 어떠한 문제를 해석하고 서술하는 보고서이다. 앞선 바와 같이 이 유형의 텍스트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특징에 따라 많은 자료와 문헌을 열람하고 학습함으로써 통하여 작성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논증 자료와 이론적 배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보고서의 체계

22) 김정남(2008)에서 제시한 ‘견해 논증 보고서’에 해당하는 유형이나, 본 연구에서는 논증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논증 보고서’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및 내용의 측면에서 설명 보고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논증 보고서는 작성자가 어떠한 주제에 관하여 논점을 세우고 충분한 논거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텍스트이며,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다시 말하면 논증 보고서는 학습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논증 보고서는 설명 보고서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논증 보고서는 증명 중심의 보고서이고, 설명 보고서는 작성자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자료와 개념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 점에서는 후술할 요약 보고서의 특징과 일부 중첩된다.

요약 보고서는 책이나 문헌, 논문 등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적는 글로, 독자로 하여금 요약 대상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유형의 보고서는 내용이 지나치게 길거나, 어휘 및 표현이 난해하거나 전체적으로 정돈되어 있지 못할 경우 그 의미가 사라지므로, 요약 보고서는 작성자의 텍스트 이해 능력과 언어 사용 능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소한 내용보다는 중심 내용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중심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면 스스로 중심 내용을 추측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 보고서는 문학 작품 등 도서나 영화, 음악, 공연 및 전시 등을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이 유형에서는 문화 매체뿐 아니라 일상생활, 시사 현안과 관련된 것들도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제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작성자의 주관적인 감상이 개입된 글이라는 점에서 형식 및 내용이 타 유형의 보고서에 비해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학술 보고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교 내에서 흔하게 접하는 유형의 것들이다. 전공이 하나라도 여러 유형의 학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업 과정에서 각 수업의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보고서의 유형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3.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 대조 분석

이 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전체적인 사용 빈도를 한국인 모어 학습자 집단(이하 ‘K 집단’)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하 ‘C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선·후행문맥 간 의미 관계 및 학술 보고서의 하위 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요소에 따른 사용 빈도 또한 살펴보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 빈도가 높으며, 의미 기능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텍스트 접속 표지인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따라서’를 중심으로 C 집단의 접속 표지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류 양상은 개별 접속 표지의 의미 기능과 선·후행문맥과의 적확성 여부를 기준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3.1.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 분석

3.1.1. 전체 사용 양상 분석

이 절에서는 C 집단과 K 집단의 접속 표지의 전체적인 사용 양상을 계량으로 분석하고, 두 집단별로 각각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로 구성된 K 집단은 C 집단보다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접속 표지를 사용하며, 접속 표지의 총사용량 또한 C 집단에 비하여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의 예측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C 집단과 K 집단의 접속 표지의 전체 사용 빈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사용 빈도를 개별 텍스트 표지의 사용 빈도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집단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전체 사용 빈도

순위	K 집단				C 집단			
	표지	유형	빈도	비율 (%)	표지	유형	빈도	비율 (%)
1	또한	첨가 (상술)	176	18.3	그리고	첨가 (상술)	88	17.74
2	첫째... 둘째...	나열 (나열)	129	13.4	또한	첨가 (상술)	88	17.74
3	따라서	결과 (인과)	119	12.4	따라서	결과 (인과)	69	14
4	하지만	대립 (대립)	110	11.4	그러나	대립 (대립)	57	11.5
5	그리고	첨가 (상술)	105	10.91	또	첨가 (상술)	38	7.6
6	그러나	대립 (대립)	84	8.73	또는	첨가 (상술)	31	6.25
7	또	첨가 (상술)	69	7.2	즉	환언 (상술)	28	5.64
8	즉	환언 (상술)	53	5.51	하지만	대립 (대립)	27	5.44
9	그런데	양보 (대립)	33	3.43	우선... 다음...	나열 (나열)	18	3.63
10	그래서	결과 (인과)	28	2.9	그래서	결과 (인과)	18	3.63
11	그러므로	결과 (인과)	14	1.46	그러므로	결과 (인과)	11	2.22
12	또는	나열 (나열)	13	1.35	그런데	양보 (대립)	9	1.81
13	예컨대	예시 (상술)	9	0.93	왜냐하면	원인 (인과)	3	0.6
14	가령	예시 (상술)	8	0.83	한편	대립 (대립)	5	1

15	왜냐하면	원인 (인과)	8	0.83	그리하여	결과 (인과)	1	0.2
16	그렇지만	대립 (대립)	2	0.21	예컨대	예시 (상술)	1	0.2
17	그래도	양보 (대립)	1	0.1	그러니까	환언 (상술)	3	0.6
18	그러면	결과 (인과)	1	0.1	요컨대	환언 (상술)	1	0.2
합계			962	100	-		496	100
평균			16.03	-	-		8.3	-

<표 9>을 살펴보면 학술 보고서에서 사용한 접속 표지는 K 집단과 C 집단 모두 18가지로 나타났으며, 유형 또한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 빈도의 경우 K 집단에서는 총 962회, C 집단에서는 총 496회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K 집단이 C 집단보다 더 많은 수의 접속 표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외에 ‘가령(0.83%), 그렇지만(0.21%)’은 K 집단에서만 실현되었고, ‘한편(1%), 그리하여(0.2%), 그러니까(0.6%), 요컨대(0.6%)’는 C 집단에서만 나타났다는 차이도 있다. 그러나 이들 표지의 실현율은 전체에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논의 가운데 류선숙(2017)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고급 한국어 학습자보다 다양한 접속 부사를 사용한다는 주장과 한송화(2016)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작문에서 사용한 접속 부사의 빈도는 모어 화자보다 많다는 언급과 대조된다.²³⁾

그리고 고빈도 접속 표지는 K 집단에서는 ‘또한(18.3%), 첫째… 둘째…(13.4%), 따라서(12.4%), 하지만(11.4%), 그리고(10.91%)’로 나타났다. C 집단의 경우, ‘그리고(17.74%), 또한(17.74%), 따라서(14%), 그러나(11.5%), 또(7.6%)’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첨가 표지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K 집단에서는 첨가 표지 외에도 나열, 결과, 대립 표지가 비교적 고르게

23) 한송화(201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TOPIK 시험 내 서술형 문제 답안 작문을 바탕으로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텍스트 유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되는 편이다. 그러나 C 집단에서는 첨가 표지의 사용량이 압도적이며, 그 외에 결과 표지와 대립 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K 집단보다는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이 보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두 집단 모두 구어적 성격이 강한 접속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접속 표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가 있다. 이 가운데 ‘그래서²⁴⁾’를 제외한 표지 가운데 두 집단에서 고르게 사용되는 ‘그런데’의 예를 통하여 구어성이 짙은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 보고서 텍스트에 나타난 ‘그런데’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1) ㄱ. [약 1세기 전 블룸필드(L. Bloomfield)를 비롯한 언어학자들은 이중 언어는 ‘한 사람이 두 개 언어를 단일 언어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두 언어를 모두 완벽한 수준으로 구사해야 제대로 된 이중 언어 사용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두 언어를 같은 수준으로 구사하긴 어렵다.] (C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 ㄴ. [언어에서 성(gender) 문제는 전통적으로 문법 범주의 성범주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종, 성별 등에 관심을 둔 인류언어학이 발달하고 인종, 지역, 계층, 성별, 연령에 대한 관심의 폭도 넓어져 갔다.] (K집단, 4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11)은 언어학 분야의 학술 보고서에 나타난 ‘그런데’의 예이다. (11ㄱ)은 이중언어(bilingual) 현상을 주제로 한 C 집단 학습자의 글에서, (11ㄴ)은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을 다룬 K 집단 학습자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두 예문 모두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서로 대립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영옥(2005)에서 선·후행 명제의 논리적인 대립 의미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의미가 강한 ‘그러나’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그런데’는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11ㄱ, ㄴ) 모두 ‘그런데’를 ‘그러나’로 수정하여야 의미적으로 적절하다.

24) ‘그래서’는 제3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K 집단과 C 집단 모두 ‘그런데’와 ‘그러나’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두 표지의 기능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 집단과 관련하여 ‘그런데’와 ‘그러나’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可是, 但是, 不过, 然而, 只是’ 등이 있으며, 이들 표현은 모두 어감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상 적절한 표지 선택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K 집단과 C 집단 모두 학술 보고서에 사용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유형이 거의 같으며, K 집단이 C 집단보다 더 많은 수의 접속 표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예측과 다른 결과에 해당한다. 이는 표지마다 실제 사용에 개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별 표지마다 의미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K 집단이 한국어 모어 사용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K 집단과 C 집단 모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등과 같은 구어성이 강한 접속 표지를 학술 보고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학습자뿐 아니라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조차 어떠한 접속 표지가 문어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사용되는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접속 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3.1.2. 접속 의미 관계별 사용 양상

여기에서는 K 집단과 C 집단이 학술 보고서에서 사용한 텍스트 접속 표지를 접속 의미 관계 및 그 하위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개별 유형에 따른 접속 표지의 종류 및 사용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접속 표지의 의미 관계는 제2장에서 유형화한 것을 바탕으로 하겠다. K 집단에서 사용한 전체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빈도를 의미 관계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의미 관계별 접속 표지 빈도(K 집단)

유형		텍스트 접속 표지	빈도	비율(%)
대분류	소분류			
상술 관계	환언	즉	53	5.5
	첨가	또한, 그리고, 또	350	36.4
	예시	예컨대, 가령	17	1.8
	소계		420	43.7
인과 관계	원인	왜냐하면	8	0.83
	결과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	162	16.84
	소계		170	17.67
대립 관계	대립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196	20.4
	양보	그런데, 그래도	34	3.53
	소계		230	23.93
나열 관계	나열	또는, 첫째... 둘째... 등 순서 나열 표지	142	14.7
합계			962	100

<표 10>에서 나타난 K 집단의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상술 관계에 해당하는 접속 표지가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첨가 표지가 36.4%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대립 관계(23.93%), 인과 관계(17.67%), 나열 표지(14.7%)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이며, 대립 관계와 인과 관계의 경우 각각 대립 표지(20.4%)와 결과 표지(16.84%)가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전술한 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첨가, 대립, 결과, 나열 등 각 의미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가 더 선호된다는 것이다.

한편 C 집단에서는 선·후행문맥 간 의미 관계에 따른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K 집단과 C 집단의 학술 보고서 모두 실현된 접속 표지의 유형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이전 항에서의 논의된 바에 따르면 그 결과 또한 <표

10>에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C 집단에서 사용한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의미 관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의미 관계별 접속 표지 빈도(C 집단)

유형		텍스트 접속 표지	빈도	비율(%)
대분류	소분류			
상술 관계	환언	즉, 요컨대, 그러니까	32	6.45
	첨가	그리고, 또한, 또	214	43.14
	예시	예컨대	1	0.2
	소계		247	49.79
인과 관계	원인	왜냐하면	3	0.6
	결과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99	19.95
	소계		102	20.55
대립 관계	대립	그러나, 한편, 하지만	89	17.94
	양보	그런데	9	1.84
	소계		98	19.78
나열 관계	나열	또는, 첫째... 둘째... 등 순서 나열 표지	49	9.88
합계			496	100

<표 11>에서는 <표 12>와 다르게 상술 관계(43.14%), 인과 관계(20.55%), 대립 관계(19.78%), 나열 관계(9.88%) 순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세부적으로 상술 관계에서는 첨가 표지가 43.14%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과 관계에서는 결과 표지(19.95%), 대립 관계에서는 대립 표지(17.94%)가 많이 실현되었다. C 집단의 경우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K 집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각 의미 관계에 따른 하위 접속 표지는 K 집단과 같이 첨가 표지, 결과 표지, 대립 표지, 나열 표지 순으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1.3. 텍스트 유형별 사용 양상

여기에서는 학술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 한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설명·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에 사용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총 빈도를 분석한 뒤, 접속 의미 관계별 하위 유형에 따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두 집단의 학술 보고서에 나타난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교육 방안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먼저 K 집단의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부터 분석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학술 보고서 텍스트 유형에 따른 K 집단과 C 집단이 사용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총량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학술 보고서 유형에 따른 텍스트 접속 표지 총 사용량

구분		설명·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	합계
K 집단	빈도	552	274	136	962
	비율(%)	57.4	28.5	14.1	100
C 집단	빈도	212	203	81	496
	비율(%)	44.8	42.9	12.3	100

<표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 집단과 C 집단 모두 설명·논증 보고서에서 접속 표지를 많이 사용한다. 다만 K 집단에서는 설명·논증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접속 표지의 양이 다른 보고서보다 압도적인 반면, C 집단의 경우 설명·논증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의 접속 표지 사용을 차이가 1.9% 차이로 근소한 편이다. 이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라도 한국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K 집단과 C 집단 모두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이 설명·논증 보고서에 집중된 원인은 이 유형의 보고서가 논리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필자의 논점을 증명하는 텍스트라는 자체적인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설명·논증 보고서는 주제에 대하여 서술할 내용의 양이 요약 보고서나 감상 보고서보다 많으며, 체계적인 기술을 위하

여 문맥 내용 간 접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접속 표지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K 집단과 C 집단의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개별 접속 표지의 접속 의미 관계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집단의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을 접속 의미 관계와 개별 접속 표지의 사용 빈도를 바탕으로 그 특징은 어떠한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우선 K 집단의 접속 의미 관계에 따른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표 13> 접속 의미 관계에 따른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K 집단)

접속 의미 관계		설명·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술 관계	환언	27	4.9	11	4	15	11
	첨가	186	33.7	108	39.42	55	41
	예시	16	2.9	1	0.36	0	0
인과 관계	원인	5	0.9	1	0.36	2	1.5
	결과	127	23	22	8	14	10.3
대립 관계	대립	125	22.65	46	16.8	25	18.4
	양보	26	4.7	4	1.46	4	2.94
나열 관계	나열	40	7.25	81	29.6	21	15.4
합계		552	100	274	100	136	100

<표 13>에 따르면 세 유형의 학술 보고서 모두 첨가 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결과 표지, 대립 표지, 나열 표지가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학술 보고서 유형마다 다르게 나타난다.²⁵⁾ 설명·논증 보고서에서는 결과 표지, 대립 표지, 나열 표지 순으로 빈도가 높은 한편, 요약 보고서에는 나열 표지, 대립 표지, 결과 표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감상 보고서의 경우 대립 표지, 나열 표지, 환언 표지 순으로 많이 쓰였으나, 이들 표지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25) 김도연(2016)에서도 논설문과 설명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대립’, ‘인과’, ‘나열’의 접속 부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리고’는 주로 첨가 표지로 보지만, 나열 기능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를 나열 표지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 집단에서의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을 개별 접속 표지의 빈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학술 보고서 유형별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K 집단)

번호	텍스트 접속 표지	설명·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또한	109	19.8	44	16	23	16.91
2	첫째... 둘째...	34	6.1	77	28.1	18	13.2
3	따라서	105	19	12	4.4	2	1.47
4	하지만	54	9.8	37	13.5	19	14
5	그리고	41	7.42	41	15	22	16.2
6	그러나	70	12.7	8	2.92	6	4.4
7	또	36	6.52	23	8.4	10	7.4
8	즉	27	4.9	11	4	15	11
9	그런데	26	2.2	3	1.09	4	2.94
10	그래서	12	4.71	7	2.6	9	6.61
11	그러므로	10	1.81	3	1.09	1	0.73
12	또는	6	1.08	4	1.46	3	2.2
13	예컨대	8	1.44	1	0.36	0	0
14	가령	8	1.44	0	0	0	0
15	왜냐하면	5	0.9	1	0.36	2	1.47
16	그렇지만	1	0.18	1	0.36	0	0
17	그래도	0	0	1	0.36	0	0
18	그러면	0	0	0	0.36	2	1.47
합계		552	100	274	100	136	100

<표 14>를 살펴보면 ‘그리고, 또한, 또’ 등의 첨가 표지가 학술 보고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대립 표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 외에 설명·논증 보고서에는 결과 표지를 사용한 한편, 나머지 유형의 보고서에서는 나열 표지의 사용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감상 보고서의 경우는 환언 표지가 일부 사용되기

도 함을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한 K 집단의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논증 보고서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개별 접속 표지는 ‘또한, 따라서, 하지만, 그리고 그러나’가 있다. 이 가운데 결과 표지인 ‘따라서’와 대립 표지 ‘그러나’의 경우 각각 논리적 결과와 선행 내용과 대립되는 사실 및 견해를 제시할 때 쓰인다. 이는 설명·논증 보고서가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필자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독자들을 설득시키는 논증적 텍스트라는 특징에 따른 것이다.

둘째, 요약 보고서에서는 ‘첫째… 둘째…, 또한, 그리고, 하지만, 또’이다. 이 가운데 이 유형에서는 나열 표지의 사용량이 돋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서적, 논문 등의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텍스트이며, 필자의 주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요약 보고서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때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둘째…’ 등과 같은 순서 나열 표지가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감상 보고서의 경우 설명·논증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보다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 유형의 보고서는 필자의 주관적인 감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텍스트로,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환언 표지 ‘즉’의 사용이 나타난다. 비록 고빈도 접속 표지 가운데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언 표지는 선행 내용을 다시 후행 내용에 언급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감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은 학술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도 달라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설명·논증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설명과 논리적 증명이라는 장르적 성격에 따라 텍스트의 양이 다른 보고서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의 학술 보고서에서 첨가 표지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학술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 특징적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설명·논증 보고서에서는 대립 표지가, 요약 보고서에서는 나열 표지가, 감상 보고서에서는 환언 표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용 양상은 모두 학술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서술 방식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C 집단에서는 학술 보고서 유형에 따라 텍스트 접속 표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접속 표지의 사용 빈도를 선·후행문맥 내용의 의미 관계와 보고서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접속 의미 관계에 따른 학술 보고서 유형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C 집단)

접속 의미 관계		설명·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술 관계	환언	8	3.8	17	8.37	4	4.94
	첨가	113	53	72	35.5	29	35.8
	예시	0	0	0	0	1	1.23
인과 관계	원인	2	0.94	0	0	1	1.23
	결과	35	16.5	42	20.7	25	30.86
대립 관계	대립	34	16.04	44	21.67	11	13.6
	양보	4	1.9	5	2.46	0	0
나열 관계	나열	16	7.55%	23	11.3	10	12.34
합계		212	100	203	100	81	100

<표 15>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K 집단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보고서에 첨가 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 결과 표지와 대립 표지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또한 K 집단에서의 사용 양상과 같다. 다만 예시 표지, 원인 표지, 양보 표지의 경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였더라도 K 집단보다 적게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K 집단 또한 세 유형의 접속 표지 사용 빈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기는 하나, C 집단에서는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C 집단이 예시 표지, 원인 표지, 양보 표지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활용 또한 어려워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C 집단의 학술 보고서 유형에 따른 개별 접속 표지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학술 보고서 유형별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량(C 집단)

번호	텍스트 접속 표지	설명·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그리고	42	19.81	30	14.78	16	19.75
2	또한	42	19.81	33	16.26	13	16.05
3	따라서	22	10.38	27	13.3	20	24.69
4	그러나	22	10.38	30	14.78	5	6.17
5	또	29	13.68	9	4.43	0	0
6	또는	10	4.72	17	8.37	4	4.94
7	즉	8	3.77	17	8.37	3	3.7
8	하지만	12	5.66	12	5.91	3	3.7
9	우선... 다음...	6	2.83	6	2.96	6	7.41
10	그래서	6	2.83	10	4.93	2	2.47
11	그러므로	6	2.83	5	2.46	0	0
12	그런데	4	1.89	5	2.46	0	0
13	왜냐하면	2	0.94	0	0	1	1.23
14	한편	0	0	2	0.99	3	3.7
15	그리하여	1	0.47	0	0	0	0
16	예컨대	0	0	0	0	1	1.23
17	그러니까	0	0	0	0	3	3.7
18	요컨대	0	0	0	0	1	1.23
합계		212	100	203	100	81	100

<표 16>에 따르면 K 집단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한, 또’ 등의 첨가 표지가 학술 보고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결과 표지와 대조 표지의 빈도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 설명·논증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에서는 나열 표지와 환언 표지가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C 집단에서도 K 집단과 같이 첨가 표지가 많이 사용된 원인으로는 해당 표지가 ‘첨가, 동일, 나열’이라는 익히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지니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또는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등의 사용도 C 집단의 학술 보고서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 집단과 C 집단에서는 접속 표지가 유형상 별 차이가 없었으나, 사용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C 집단이 개별 한국어 텍스트 접속 표지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낮은 활용 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의미 기능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접속 표지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의미 기능이 유사한 접속 표지의 변별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한송화(2016)의 견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의미 기능 분별이 어려운 텍스트 접속 표지를 사용한 문장을 분석하여 학술 보고서에는 어떠한 텍스트 접속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오류 양상 분석

앞 절에서는 한국인 모어 학습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 접속 표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학습자에 비하여 접속 표지의 활용 능력이 낮고 의미 기능이 유사한 접속 표지의 구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학술 보고서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오류로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능력의 향상에 가장 적절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텍스트 접속 표지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전 우선 이 절에서 연구한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앞서 3.2.3에서는 텍스트 유형별로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 모어 학습자와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두 텍스트 유형 중 첨가 표지 ‘그리고, 또한, 또’ 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자들은 ‘그리고, 또한, 또’ 를 초급 단계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연구 대상은 한국어 지식이 있는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고급 학습자로 설정하고 ‘그리고, 또한, 또’ 등 첨가 표지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첨가 표지뿐만 아니라 결과 표지인 ‘그래서, 따라서’, 대립 표지인 ‘그러나, 하지만’ 은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학습자가 학술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텍스트 접속 표지이다. 여기서 ‘그래서’ 와 ‘따라서’, ‘그러나’ 와 ‘하지만’ 은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접속 표지를 사용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1. ‘그러나’ 의 오류 양상

그동안 텍스트 접속 표지의 주요 연구 대상인 ‘그러나’ 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김미선(2001), 장기열(2003), 신지연(2005), 함계임(2007), 하지결(2011)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는 ‘그러하다’ 의 어간 ‘그러하-’ 와 대립의 연결어미 ‘-(으)나’ 가 결합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따르면 ‘그러나’ 는 “앞의 내용과 뒤 내용이 상반될 때는 쓰는 접속 부사” 이다. 각 연구에서 제시한 ‘그러나’ 의 의미 기능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그러나’ 의 의미 기능

선행 연구	의미 기능
김미선(2001)	기대 부정, 양보, 대조, 전환, 예외, 정정, 제약
장기열(2003)	전환, 대립, 기대 부정, 강조, 나열
신지연(2005)	대조
함계임(2007)	기대 부정, 양보, 전환, 예외, 제약
하지결(2011)	대조, 의외, 양보, 첨가, 정정, 연관, 전환, 제약

<표 17>에서는 연구자마다 ‘그러나’ 의 의미 기능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지연(2005)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 따르면 ‘그러나’의 의미 기능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립 관계에서의 대표적인 접속 표지라는 점에서 ‘대립’ 또는 ‘대조’²⁶⁾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그러나’의 대조 의미 기능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지연(2005)에서는 ‘그러나’가 지니는 대조 의미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신지연(2005: 40~44)

- ㄱ.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나 영수는 공부를 못한다.
- ㄴ.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나 영수는 운동을 잘한다.
- ㄷ.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나 몸이 약하다.
- ㄹ.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나 잘난 체하지 않는다.
- ㅁ.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나 늘 1등만 하는 것은 아니다.

(12)에 제시된 예문에 따르면 ‘그러나’는 문맥에서 선·후행문 사이에서 대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양상은 두 문장의 문맥에 따라 다르다. (12ㄱ)은 가장 기본적인 예로, 이 예문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와 ‘공부를 못한다.’가 의미적으로 대립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두 문장은 대조의 의미로 연결된다. (12ㄴ)은 의미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문장 구조 측면에서 두 문장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립 구문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신지연 2005: 27). (12ㄷ)에서는 동일한 주어의 양면적인 특성을 두 문장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즉 ‘공부를 잘한다’라는 긍정적인 면과 ‘몸이 약하다’라는 부정적인 면으로 대조된다.

(12ㄹ)은 대조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12ㄱ~ㄷ)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예이다. 이 예문은 ‘공부를 잘하면 잘난 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전제를 지닌다는

26) 김미선(2001: 95)에 따르면 ‘대립’은 후행문이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대립’은 선행문과 후행문의 의미 내용이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대비되는 것을 이른다. 이에 따라 신지연(2005: 40~42)에서는 선·후행문의 비교에서 두 문장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는 것이며, 대립은 그 차이를 극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조되는 것들이 모두 대립을 이루지는 않지만, 대립되는 것들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여 대조가 사용폭이 넓다고 하였으며, 대립의 경우 대조의 차이가 커질 때 대립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성의 관점에서는 대조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점에서 후행문과 대조되며, ‘그러나’는 이 둘을 간접적으로 연결한다. (12ㄴ)은 대조라기보다는 양보²⁷⁾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예문에서는 철수가 공부를 잘한다는 선행문의 내용을 긍정하기는 하나, 후행문에서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양보적 대립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대립 표지로서 ‘그러나’의 의미 기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C 집단에서 작성한 학술 보고서 텍스트 가운데 ‘그러나’가 사용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 [① 1999년 소비류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시장 도입기에 들어서는 등 활황세를 보였다.] [② 1999년 이후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는 개명 단계를 실천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③ 1999년 소비류 전자상거래 행사에서 온라인 쇼핑은 총 거래액이 5500만 원에 달했다.] [④ 2000년 1분기까지 소비류(B2B, C2C)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1100여 개에 달했다.] [⑤ 1999년 말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기업 간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대거 생겨나고 많은 기업이 온라인 구매 등에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⑥ *그러나 1998년 구미 국가 기업 간 30억 달러, 2000년 미국 5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 탐색과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미래 성장 잠재력은 크다.] (C 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13)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을 설명한 학술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이 예문에서 대립 표지 ‘그러나’는 (13⑤)와 (13⑥) 사이에 사용되었다. 이들 문장은 직접 대립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13⑥)의 내용과 (13③)의 ‘거래액 5500만’이 대립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13⑤)와 (13⑥) 사이에 ‘그러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의미상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문장의 해석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는 글 전체적으로 필자의 서술 의도가 명확해지지 못한 점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적절한 사용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문장 배열로 ‘그러나’가 잘못 사용되기도 하는

27) ‘양보’란 앞에 서술한 내용에 대해 일부분만 인정해 주고 후행문에서 그와 반대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김미선 1993:96).

한편, 선행문과 후행문이 대립 관계가 아님에도 ‘그러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또한 한국어 학습자가 텍스트 접속 표지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4) ㄱ. [이제는 스마트 폰 보급률이 이미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기기 변경 의지가 높지 않아서 휴대 전화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파괴적인 기술은 5G라는 단점을 낳았다.] [4G는 삶을 변화시키고 5G는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킨다.] (C 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 ㄴ. [웨이보를 살펴보니 웨이보의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약한 관계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그 두드러진 표현은 팬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의 아이돌을 좋아한다.] [우리는 팬덤에서 소통할 수 있다.] [정체성이 비슷하고 소속감이 있고 일정한 유사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웨이보 팔로워들에게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군이 시공간의 제한을 깨고 사군 구성원들의 유동성과 인터랙티브성이 증대되고 있다.] (C 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 ㄷ. [중국을 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제제재를 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은 이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C 집단, 4학년, 요약 보고서)

(14)에 제시된 사례는 모두 선행문과 후행문이 대립 관계를 이루지 않음에도 ‘그러나’가 사용되었다. (14ㄱ)에서는 선행문의 후행절²⁸⁾과 후행문의 내용이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즉 휴대 전화 판매량의 감소와 5G 기술의 폐해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ㄴ)은 중국의 SNS 웨이보(weibo) 내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에서 발췌한 사례이다. 이 예문에서는 대립 표지 ‘그러나’로 연결된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대조되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선행 내용은 ‘사람들은 팬덤 안에서 소통함으로써 일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후행 내용은 ‘웨이보 팔로워들은 시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28) (21ㄱ)의 선행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서로 반대됨에도 나열의 연결어미 ‘-으며’를 사용하고 있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함으로써 구성원 사이의 유동성과 인터랙티브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후행문이 선행 문맥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나’보다 ‘또한, 그리고’를 사용하면 자연스럽다.

(14c)의 경우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에 관한 예문으로, 여기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이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그러나’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는 자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였다는 선행문의 내용과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행문의 내용이 각각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러나’를 결과 표지인 ‘따라서’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3.2.2. ‘하지만’의 오류 양상

‘하지만’은 동사 ‘하다’의 어간과 연결어미 ‘-지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속 표지이다. 이는 ‘그러나’와 같은 대조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상호 대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하지만’은 구어와 문어 모두 쓰일 수 있으나, ‘그러나’에 비하여 구어적인 느낌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노대규(1992)에서는 ‘-지만’을 구어적이며 비격식적인 어미로²⁹⁾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하지만’은 의미 기능상 ‘그러나’와 차이를 보인다. 진정은(2006)에 따르면 ‘그러나’는 문맥적 대립 요소에 따라 강한 대조 의미를 지니는 반면, ‘하지만’은 선행문의 전제로 나타난 기대를 후행문에서 부정함으로써 양보 의미를 나타낸다. 또 ‘하지만’은 단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나’보다 완곡하고 공손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하였다³⁰⁾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하지만’과 ‘그러나’는 그 사용 환경에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은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고, 문어에서는 주로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비격식적인 글에 나타난다(진정은 2006:82). 한편 ‘그러나’는 주로 신문이나 보고문, 설명문 등과 같이 격식성을 요구하는 문어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9) 노대규(1992)에서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비격식적 어미와 문어에서 쓰이는 격식적 어미로 나누었다. 전자의 유형에는 ‘-니까, -지만, -고, -려고’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므로, -으나, -며, -고자’가 있다.

30) ‘하지만’과 대응되는 표현은 ‘그렇지만’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할 학술 보고서에서는 ‘하지만’ 또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학술 보고서가 학술 텍스트로서 격식성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 등의 텍스트보다는 그 강도가 낮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하지만’ 의 사용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 양상이 어떠한가는 다음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5) ㄱ.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생명체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메두사가 처음부터 이러한 괴물의 모습은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C 집단, 3학년, 요약 보고서)
- ㄴ. [위챗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비슷한 위챗 공식계정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플러스 친구에 비해 공식계정의 쓰임새가 더 많다.] (C 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 ㄷ. [웨이보의 인적 소통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임의적인데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실생활보다 자주적이고 실생활에서 ‘체면’에 구속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웨이보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C 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15ㄱ)은 그리스 신화의 일화를 다룬 학술 보고서이며, (15ㄴ, ㄷ)은 중국의 SNS인 위챗(WeChat)과 웨이보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15ㄱ)에서는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 사이에 표면적인 대립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하지만’ 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기는 하지만, 선·후행문 간의 대립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그러나’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15ㄴ)에서는 위챗에서 카카오톡(KakaoTalk) ‘플러스 친구’ 와 유사한 ‘공식 계정’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보다 위챗 공식계정이 더 쓰임새가 많다는 점에서 선행문과 후행문이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후행문이 선행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지만’ 을 ‘그리고, 또한’ 과 같은 첨가 표지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ㄷ) 또한 (15ㄴ)과 마찬가지로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대립하지 않는 예이다. 이 예문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으며, 체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웨이보의 특징에 따라 웨이보 내 대인관계 구조가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

서 해당 예문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로서 ‘하지만’ 보다 결과 표지인 ‘따라서’ 를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그러나’ 와 ‘하지만’ 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표지는 대표적인 대립 표지로서 거의 같은 의미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학술 보고서에서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 및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그러나’ 와 ‘하지만’ 은 사용 환경에서 의미 기능까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사용에서 오류를 일으킨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2.3. ‘따라서’ 의 오류 양상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따라서’ 는 선행하는 내용이 후행하는 내용의 원인, 이유, 근거임을 나타내는 접속 표지이다. 이에 따라 박건숙(2020)에서는 ‘따라서’ 를 문어에서 ‘이유-결론’³¹⁾의 의미 관계를 지니는 표지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 관계는 한 사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논리적인 논증 과정을 걸친 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서 나타난 ‘따라서’ 의 오류 양상을 다음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6) ㄱ. [숙달도 평가(proficiency test)는 학습자의 생활 배경을 반영한 미래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목표어의 수행자질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정한다] *따라서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교육기관의 지침이나 특정한 교재에 근거하지 않는다.] [때문에 숙달도 평가는 피험자의 특성이나 학습 과정을 특별한 고려할 필요가 없이 동일한 능력 평가를 여러 학습 대상에 적용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C 집단, 3학년, 요약 보고서)

- ㄴ. [신뢰도(reliability)는 평가도구가 측정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믿을 만

31) 이유는 김미선(1998: 122)에 따르면 수행할 행위의 동기, 믿음이나 주장의 근거, 추론 혹은 추정의 전제나 근거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결론은 이른바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가지 이유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 과정을 걸쳐서 되는 것이다(박건숙 2020:1220).

하게 오차 없이 측정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신뢰도의 관건은 안정성과 정확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의 유형에는 채점자 신뢰도, 문항내적 합치고, 반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동향 검사 신뢰도가 있다.] (C 집단, 3학년, 요약 보고서)

ㄷ. [이 시기의 교사들은 상당히 긴 지문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서 목표어로, 혹은 모국어로 번역하게 하고, 선택한 문법 요점들에 대해 연습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평가법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용된 평가법은 교실상황 밖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학생들이 사용할 줄 아는가를 측정하는 데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C 집단, 3학년, 요약 보고서)

ㄹ. [Bachman and Palmer는 인간이 가진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을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 능력은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은 언어적 능력, 전략적 능력, 심리생리학적 기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 (C 집단, 3학년, 요약 보고서)

(16ㄱ)는 ‘따라서’를 경계로 선행문에서는 ‘숙달도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는 한편, 후행문에서는 평가 내용 및 방법상의 특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유-결과’라 하기에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따라서’로 연결한 선행문은 후행문에서 내린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접속 표지 ‘따라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 예문에서는 ‘따라서’보다는 나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표지 ‘그리고’, ‘또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16ㄴ)은 언어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 방법을 논의한 학술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 사례 또한 앞선 문장에서는 신뢰도의 개념을 제시한 한편, 뒤따르는 문장에서는 신뢰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6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예문에서도 ‘따라서’를 나열 관계 표지로 대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언어 평가 방법의 시대적 변천을 서술한 (16ㄷ)에서는 과거의 언어 평가법의 특징을 설명하는 선행문과 후행문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립 의미가 강한 ‘그러나’로 바꾸어 쓰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한편 (16ㄹ)의 경우는 (16ㄱ, ㄴ)과

같은 유형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는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의 기본 개념을 제시한 뒤 세부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행 내용이 선행 내용을 보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열 관계 표지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합하다.

3.2.4. ‘그래서’의 오류 양상

‘그래서’는 선·후행문이 ‘원인-결과’의 의미 관계를 이룰 때 사용하는 접속 표지이다. 여기에서 ‘그래서’는 그 의미 관계에 따라 ‘따라서’와 의미가 유사하며, 쓰임도 같을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두 표지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먼저 김미선(1998: 122)에서는 어떠한 판단의 근거나 동기를 ‘이유’라고 한다면, ‘원인’은 결과를 일으키는 필연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론’은 선행하는 ‘이유’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인 한편, ‘결과’는 원인에 따른 결말이라는 점에서 ‘따라서’의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³²⁾.

두 표지의 실현 환경과 관련하여 박건축(2020)에서는 ‘따라서’는 문어에서만 사용된다고 한 것과 달리 ‘그래서’는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그래서’가 ‘따라서’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그래서’와 ‘따라서’는 유형상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표지에 속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두 표지의 의미와 실현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와다 히로유키(2004)에서는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그래서’의 오류 양상이 대부분 대치(replacement)로 나타났으며, 중급 학습자들이 그러한 오류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류의 주요한 원인으로 ‘그래서’와 ‘따라서’의 의미적 유사성을 들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래서’는 구어와 문어 모두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그래서’와 ‘따라서’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김미선(1998: 122)에서는 원인을 대체로 결과를 일으킨 요인으로서 그 결과와 필연적 관계를 맺은 것, 즉 결과의 발생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결과는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말로, 앞 항에서 설명한 ‘따라서’의 ‘이유-결과’와 차이가 있다.

- (17) ㄱ.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과 채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사유체계나 행동 양식은 상당히 다르다.] [전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양식을 지니고 있는 반면, 후자는 다소 소극적인 사고방식과 정적이고 수동적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볼 때, 서양 사람들과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반면 동양 사람들은 곡류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C 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 ㄴ. [조직의 아웃소싱은 몇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으나 인소싱에 있어서도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능력과 아웃소싱 전략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질 때, 자본 수입과 유연성의 개선, 낮은 위험과 비용으로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C 집단, 3학년, 설명·논증 보고서)

(17)에는 모두 ‘그래서’가 적절하지 못한 용례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17ㄱ)은 동양과 서양의 식문화 차이에 따른 사고방식의 차이를 설명한 학술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그래서’는 가장 마지막 문장 앞에 나타나 있는데, 이 문장은 서양인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을 식문화에 근거하여 도출한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선·후행 내용이 ‘이유-결론’의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보다는 ‘따라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7ㄴ)에서는 경영 혁신 기법에 대한 설명·논증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 용례에서는 아웃소싱과 인소싱 전략 모두 위험이 따르지만³³⁾, 이들 전략이 적절하게 조화된다면 기업이 얻는 이득이 크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의미상 대립한다. 그중에서도 (17ㄴ)은 앞선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뒤따르는 내용에서 이를 부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양보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 나타난 텍스트 접속 표지 ‘그러나, 하지만’과 ‘따라서, 그래서’의 오류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3)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아웃소싱(outsourcing)은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업 업무의 일부 절차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이르는 한편, 인소싱(insourcing)은 기업이나 조직에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일을 뜻한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바, (27ㄷ)에서 후행문의 ‘기업의 핵심능력’은 인소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접속 표지 사용 오류는 각 표지 간 의미 차이 및 사용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텍스트 접속 표지가 사용되는 문체적 성격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각 표지가 지니는 구어성과 문어성을 구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구어와 문어에 구별 없이 쓰인다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어학원에서는 쓰기 능력보다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을 중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곧 한국어 사용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학원의 교육 방식에 따라 초급 단계에서 배운 어휘들이 고급 단계에서도 계속 사용되며, 이들 어휘가 구어와 문어의 구별 없이 쓰인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같은 유형으로 묶인 텍스트 접속 표지라도 각 표지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적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이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 간 차이를 구별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³⁴⁾. 이러한 점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정확한 사용에 많은 지장을 준다.

셋째, 두 번째 원인과 관련하여 선·후행 내용 간 접속 의미 관계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예문에서 접속 표지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쓰기 과정에서 개별 접속 표지 간 의미 기능 차이 뿐 아니라 문장과 문장, 문장과 문단 간의 상술 관계, 인과 관계, 대립 관계, 나열 관계로 세분되는 의미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다음 장에서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그래서’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인 TOPIK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 대상 및 목표를 선정하고, 개별 접속 표지의 의미적 특징과 실현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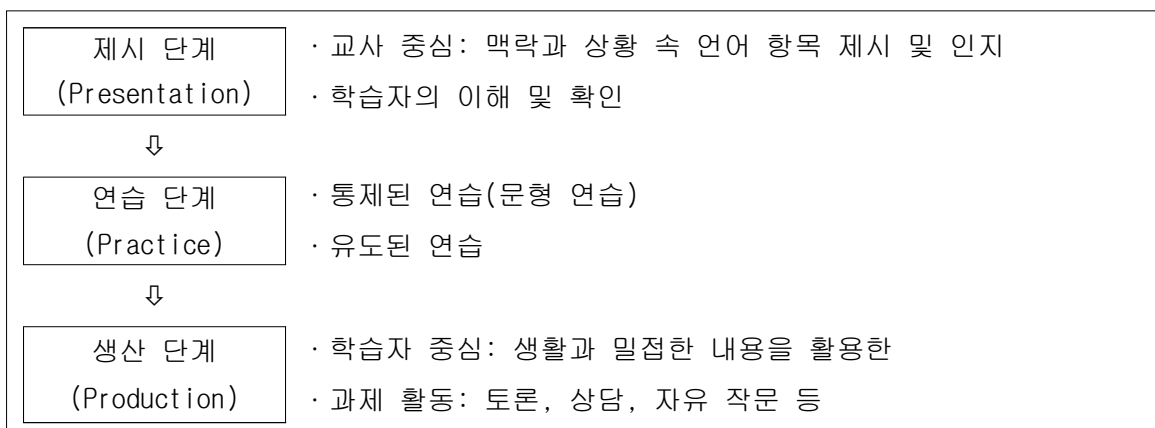
34) 중국어의 경우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하지만’과 대응되는 표현은 ‘可是, 但是’가 있는데, 이들 표지는 모두 동의어와 다름없이 쓰인다는 점에서, 쓰기 과정에서 적절한 한국어 접속 표지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4.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교육 방안

제3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를 대상으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닌 텍스트 접속 표지 가운데 대립 관계 표지인 ‘그러나, 하지만’ 과 인과 관계 표지인 ‘따라서, 그래서’ 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네 접속 표지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교육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Thornbury(1999)에서 제시한 ‘PPP 모형’ 을 바탕으로 대립 관계 표지 ‘그러나, 하지만’ 과 인과 관계 표지 ‘따라서, 그래서’ 의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우형식(2015: 191)에서는 PPP 모형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교수 모형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고 통합적인 교수 모형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PPP 모형은 언어 학습을 통하여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교수자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새로운 언어 항목(language item)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PPP 모형은 ‘바른 언어 사례 제시(presentation)’ , ‘반복 학습(practice)’ , ‘생산(production)’ 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곽지영 외(2007)에서는 PPP 모형을 반복 연습을 통해 바른 언어 자료를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형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우형식(2015)에서 도식화한 PPP 모형을 인용한 것이다.



[그림 3] PPP 모형의 단계 구성(우형식 2015:192)

[그림 3]에 따르면 제시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 항목을 인지하게 하고, 그 형태와 의미, 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다음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는 해당 언어 항목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연습을 진행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새롭게 배운 언어 항목을 사용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 항목은 학습자의 언어 지식의 일부분이 되고, 이미 학습한 다른 언어 항목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하게 된다(유형식 2015: 192).

일반적으로 언어 교육은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PP 모형을 적용하되, 수업 진행 방식 또한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은 ‘도입(warming up) -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생산(production) - 마무리(follow up)’³⁵⁾의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또한, 수업 시간은 대립 관계 표지 50분, 인과 관계 표지 50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4.1.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 선정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교육 대상과 목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과 목표가 뚜렷해야 정확하고 알맞은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평가 기준³⁶⁾을 토대로 교육 대상 및 목

35)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곽지영 외(2007)에서는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 ㄱ. 도입 단계: 학습 목표를 도입하는 단계로 교수자와 학생 간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어낸다.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문법이 사용되는 맥락과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맥락을 통해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ㄴ. 제시 단계: 도입 단계가 끝나면 교수자는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한 단순한 문형부터, 문법 규칙, 또한 예문, 의미를 정리해서 장황하지 않게 설명하여야 한다.
- ㄷ. 연습 단계: 학습자들이 제시 단계에서 이해한 규칙을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 제시 단계에서 이루어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록 하는 단계이다.
- ㄹ. 생산 단계: 제시와 연습을 통해 학습한 문법 항목을 보다 큰 담화 단위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특정 문법 항목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연습을 위하여 정해진 형태를 활용하여야 한다.
- ㅁ.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육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숙제를 부과하여야 한다.

36) <https://www.topik.go.kr/cmm/subLocation.do?menuSeq=2110101>

표를 설정하기로 하겠다. 다음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제시하는 쓰기 영역의 평가 기준을 인용한 것이다.

<표 18>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영역 평가 기준

	등급	쓰기 평가 기준
초급	1급	-
	2급	-
중급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글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설명문의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문어체 종결형을 사용해 글을 쓸 수 있다.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서류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간단한 감상문, 설명문, 수필 등을 쓸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고급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관련이 적은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다. · 업무나 학문 등의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글을 쓸 수 있다. · 다양한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격식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감상문, 설명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쓰거나 요약할 수 있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업무나 전문 분야의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 한국어 담화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다. ·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논문, 연설문, 공식적인 문서 등을 쓸 수 있다.

<표 18>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쓰기 능력은 중급 단계부터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감상문, 설명문, 수필, 보고

서, 논설문 등의 다양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국어 학습자는 중급 단계부터 쓰기 과정에서 습득한 어휘나 문법은 고급 단계에 진입하여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고급 단계에서의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오류율은 중급 단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급 단계에서 이미 능숙한 쓰기 능력이 구성되었다는 주장과 상통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텍스트 접속 표지는 고급 단계보다는 중급 단계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교육 대상은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이며, 이들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급 단계로 막 진입한 학습자이다. 둘째, 중급 단계와 고급 단계 사이에 속하며, 쓰기 훈련을 일정 수준으로 받은 학습자이다. 셋째로는 중급 단계에서 곧 고급 단계로 진입하는 학습자들이다.

위의 학습자 부류 가운데 첫째 부류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의 학습자가 중급 단계부터 쓰기를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중급 단계의 학습자는 쓰기 과정의 측면에서도 초급 단계에서 배운 어휘 및 문법 항목의 영향으로 해당하는 단계에서 학습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이에 따라 텍스트 접속 표지 교육은 중급 단계로 막 진입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별 표지의 기초적인 개념에서 실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제3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에서 개별 접속 표지가 지니는 구어적, 문어적 성격,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 간 차이, 텍스트 내 문장 간 접속 의미 관계에 대한 구별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중급 학습자는 쓰기 영역에서는 초급 학습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습득한 제한적인 범위의 한국어 능력으로는 텍스트 접속 표지의 용법을 알지 못함에 따라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의 사용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급 단계에서 완성되어야 고급 단계에 진입하였을 때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한 바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구어적, 문어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둘째,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 ‘그러나, 하지만’ 과 ‘따라서, 그래서’ 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를 활용하여 학술 보고서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의 구조 및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 또는 문단 간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논리의 흐름을 담당하는 언어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개별 접속 표지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가능해진다면 학술 보고서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텍스트의 장르별 특징과 구조는 어떠한가를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4.2. ‘그러나’ 및 ‘하지만’ 의 교육 방안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나’ 와 ‘하지만’ 은 대립 관계의 접속 표지에 속한다. ‘그러나’ 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대조 의미를 지니는 한편, ‘하지만’ 은 그러한 의미가 약한 대신 양보의 기능도 지닌다. 또한, 실현 환경에서 ‘그러나’ 는 주로 격식성이 높은 문어에서 나타난다. 이와 달리 ‘하지만’ 은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문어의 경우 격식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장르에서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전술한 바에 주목하여 두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9> ‘그러나’ 와 ‘하지만’ 의 교육 방안

교육 방안 구성	구체적인 교육 내용
교육 시간	50분
교육 대상	초기 중급 단계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교육 내용	텍스트 접속 표지 ‘그러나’ 와 ‘하지만’ 의 용법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와 ‘하지만’ 을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 ‘그러나’ 와 ‘하지만’ 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 ‘그러나’ 와 ‘하지만’ 이 나타나는 접속 관계 및 환경 파악하기

<표 21>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그러나’와 ‘하지만’은 서로 의미 기능 및 실현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형식(2012: 169)에 따르면 말하기와 쓰기, 읽기 등의 언어 기능보다 쓰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흥미도 잃기 쉽다. 따라서 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학습자들에게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한 ‘그러나’와 ‘하지만’의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도입 단계(5분)

이 단계는 학습자가 배우게 될 문법 항목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단계이다.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내용의 윤곽을 언급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쓰기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업 내용을 도입한다. 그다음 ‘그러나’와 ‘하지만’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서로 외모와 성격이 모두 비슷한 두 친구가 있나요? 없다면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은 그 두 친구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배우게 될 ‘그러나’와 ‘하지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중국어 ‘但是’와 ‘可是’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외모도 성격도 비슷하지만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나’와 ‘하지만’을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하여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이상과 같이 도입 단계에서 교수자는 수업에서 교육할 문법 항목인 ‘그러나’와 ‘하지만’을 노출한다. 특히 쓰기는 말하기, 듣기, 읽기와 달리 학습자가 흥미와 자신감을 쉽게 잃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급 수준에 막 진입한 학습자들은 여전히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그러나’와 ‘하지만’에 대응하는 학습자의 모국어 표현과 관련지어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할 내용을 더욱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제시 단계(15분)

제시 단계에서는 목표하는 ‘그러나’와 ‘하지만’이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개별 문법 항목을 설명할 때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단계에서는 ‘그러나’와 ‘하지만’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제시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교사: ‘그러나’와 ‘하지만’은 모두 대립 관계에 속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두 단어는 사전에서 제시하는 의미, 사용 환경, 의미 기능, 어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러한 사실은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하지만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
사용 환경	객관적이고 격식적인 성격의 문어(글)에서 많이 사용한다.	주로 구어(말)에서 나타나지만, 격식적인 성격이 약한 글에서도 나타난다.
기본 의미 기능	대립 기능	양보 기능
중국어 대응 표현 ³⁷⁾	但是	(雖然)可是
어감	단정적인 느낌	공손한 느낌

교사: 표를 보시면 ‘그러나’는 단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쓰이고, 주로 글에서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만’은 ‘그러나’와 비슷한 것 같지만, 두 문장을 연결할 때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주로 우리가 말로 대화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소설이나 수필같이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운 글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하지만’은 양보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양보는 앞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뒤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 표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글에서는 두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흔히 과학과 예술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① 과학은 이상적이며, 예술은 감상적이므로 예술을 추구하는 데 과학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하지만 ② 이런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 현대의 명작들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되는 접점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항을 줄이려는 과학 기술과 유려한 곡선이 결합된 스포츠카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사: 첫 번째 밑줄 친 문장은 과학과 예술은 성격이 달라서 예술을 추구하는 데 과학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밑줄 친 문장에서는 이런 생각은 편견일 뿐이라고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은 객관적이고 격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해요.

다음으로 ‘하지만’의 양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기: 제이슨 씨, 우울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제이슨: 네, 직장 상사한테서 꾸중을 들었어요.

유기: 아니, 왜 꾸중을 들었는데요?

제이슨: 제가 어제 거래처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깜빡하고 못 보냈거든요.

유기: ① 어쩌다가 그랬어요? 제이슨 씨가 실수한 것 같네요.

제이슨: ② 네. 알아요. 그러나/하지만 ③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야단을 칠 수 있어요? 정말 속상해요. 38)

교사: 양보 기능은 앞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뒤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시죠? 글을 보시면 제이슨이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혼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기는 밑줄 친 ①번 문장처럼 제이슨이 실수했다고 하고 있네요. 제이슨도 ②번과 같이 자기 실수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③번에서는 상사한테 큰소리로 야단을 맞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보 기능이 있는 ‘하지만’ 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하지만’ 은 ‘그러나’ 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우리가 말로 대화할 때 주로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연습 단계(20분)

연습 단계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문법 항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습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이자 학습자들이 ‘그러나’ 와 ‘하지만’ 을 어디까지 이해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교수자는 교육 목표에 따라서 체계적인 연습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자신감과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내에 연습을 끝내야 한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명한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세 가지 교육 목표에 따라 연습 방식 또한 세 가지로 나열하고자 한다.

교육 목표 (가)

‘그러나’ 와 ‘하지만’ 을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연습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

37) 하지결(2011)에서는 ‘但是’ 와 ‘可是’ 는 다 전환 관계에 속하는 접속사인데 의미와 사용 양상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但是’ 와 ‘可是’ 는 보편적으로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지만 ‘可是’ 의 전환 정도가 ‘但是’ 보다 약하고, 공손한 느낌을 주게 되고 주로 구어에서 쓰이고, ‘但是’ 의 전환 정도가 강해서 구어에서도 사용하지만, 문어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38) 《이화 한국어 3-1》에서 인용하였음.

그러나	하지만
-----	-----

- ① 유나: 리리야, 영화 ‘기생충’ 본 적 있어?
리리: 응 봤어. () 생각보다 재미없더라.
- ② 유나: 리리야, 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리리: 나는 마블 영화가 정말 좋아. () 전부 다 못 봤어.
- ③ 유나는 조용히 () 단호하게 리리에게 말했다.
- ④ 사람들은 학술 보고서와 감상문은 모두 어떠한 주제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 감상문은 보고서처럼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글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책이나 영화를 보고 난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어떠한 형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글, 그림 그리고 만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답: ① 하지만 ② 하지만 ③ 그러나 ④ 그러나

교육 목표 (나)

‘그러나’ 와 ‘하지만’ 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연습 2. 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

- ① 나는 영화로 힐링한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쉬는 시간에는 잠을 잔다.
- ②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 않다. 동생은 게임을 좋아한다.
- ③ 영화를 통해 복잡한 사회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는 영화보다 더 어둡다.
- ④ 영화는 생활에 뿌리를 둔다. 하지만 생활보다 상위에 있다.

정답: ① 我喜歡看電影放鬆, 可是現在太累了休息的時間都在睡覺

- ② 我喜歡看電影。但是我弟弟不喜歡.弟弟喜歡打遊戲
- ③ 從電影裏能看到複雜的社會現象, 但是真實的社會比電影更殘酷
- ④ 電影來源生活可卻高于生活

연습 3. 다음 문단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 ① 看著電影消磨時間的人很多。也有人認為腦子裏很混亂的時候, 看著電影就可以讓擔心消失, 心情平靜。但是我對這樣的觀點不能理解。對我來說, 因為不管是多麼輕鬆的電影內容, 都要爲了掌握登場人物而用腦。
- ② 在寫電影感想文的時候很多人只關注于電影內容。但是相比于電影內容, 感想文更注重筆者的感情和想法, 所以只關注電影內容的話, 就失去了寫電影感想文的意義

정답:

- ① 영화를 즐겨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영화를 보면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에게 영화는 그 내용이 아무리 가볍더라도 등장인물을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② 영화 감상문을 작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영화 내용에 치중하여 감상문을 작성한다. 그러나 감상문은 영화의 내용보다 필자의 느낀 점과 생각을 적는 글이기 때문에 영화 내용에만 치중하면 영화 감상문은 의의를 잃는다.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 목표 (다)

‘그러나’ 와 ‘하지만’ 이 어떠한 의미 관계에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기.

연습 4. 다음 문장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문단을 구성해 보십시오.

- ① ㉠ 그러나 한두 문장으로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압축해 표현하기는 어렵다.

- ㉠ 영화 감상문을 잘 쓰려면 먼저 영화의 내용을 잘 요약하여야 한다.
 - ㉡ 필자가 전체 감상문에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영화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 그다음 인상적인 영화 장면과 인물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설명한다.
 - ㉣ 그러므로 필자가 영화 감상문을 쓰기 전에 글의 구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② ㉠ 따라서 바쁜 현대인들은 드라마보다 시간이 짧은 영화를 더 좋아한다.
- ㉡ 그러나 영화는 시간이 짧아서 모든 스토리와 감정 전달에서 미흡할 때가 많다.
 - ㉢ 영화는 내용을 짧고 굵게 전달하고 반면, 드라마는 스토리와 인물들이 더욱 디테일하게 짜여진 대신 시간이 길다.
 -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드라마나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든다.
 - ㉤ 그 이유는 사람들이 소설이나 드라마로 기본적인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기에 영화를 감상할 때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 정답: ① ㉠-㉡-㉢-㉣-㉤
- ② ㉡-㉠-㉡-㉣-㉤

▶ 생산 단계(5분)

생산 단계는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에서 학습한 문법 항목의 내용을 스스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 비하여 교수자의 역할 비중이 낮은 편으로, 학습자가 중심이 된다. 물론 생산 단계를 수업 중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생산 단계는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교육 내용에 비추어 어떠한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습 5.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감상한 뒤, 그에 대한 내용과 소감을 써 오세요.
 감상문에는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영화의 내용 개괄하기
- ② 감상문에서 ‘그러나’, ‘하지만’ 을 사용하기

▶ 마무리 단계(5분)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상으로 진행된 교육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학습자의 질문에 응답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교사: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텍스트 접속 표지 ‘그러나’ 와 ‘하지만’ 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그러나’ 와 ‘하지만’ 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과제도 다음 시간까지 해 오세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금 질문하세요.

4.3. ‘그래서’ 및 ‘따라서’ 의 교육 방안

이 절에서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텍스트 접속 표지 ‘그래서’ 와 ‘따라서’ 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후행 내용의 관계에 따라 ‘따라서’ 는 ‘이유-결론’, ‘그래서’ 는 ‘원인-결과’ 의 구성에서 나타나며, ‘그래서’ 는 구어와 문어에서, ‘따라서’ 는 문어에서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3장에서 살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서’ 와 ‘따라서’ 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학습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래서’ 와 ‘따라서’ 의 교육의 방안을 설계한 것이다.

<표 20> ‘그래서’와 ‘따라서’의 교육 방안

교육 방안 구성	구체적인 교육 내용
교육 시간	50분
교육 대상	초기 중급 단계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교육 내용	텍스트 접속 표지 ‘그래서’와 ‘따라서’의 용법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서’와 ‘따라서’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 ‘그래서’와 ‘따라서’가 어떠한 의미 관계에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기 · ‘그래서’와 ‘따라서’를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표 20>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 시간과 대상, 교육 내용 및 목표가 앞 절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도 다섯 단계로 구성되는 교육 절차에 따라 각 단계에서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도입 단계(5분)

도입 단계에서 교수자는 지난 수업의 교육 내용인 ‘그러나’와 ‘하지만’의 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학습자에게 해당 내용을 상기시킨다. 그다음 이번 수업에서 학습할 문법 항목인 ‘그래서’와 ‘따라서’에 대한 내용을 노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에서 ‘그러나’와 ‘하지만’을 배웠었죠. 두 표현이 뜻은 같아 보여도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러한 표현을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와 ‘따라서’인데요, 이들 표현 또한 뜻이 비슷한 중국어 표현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는 ‘所以’, ‘따라서’는 ‘因此’가 있는데, ‘所以’와 ‘因此’도 구별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와 ‘따라서’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 제시 단계(15분)

도입이 끝나면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그래서’와 ‘따라서’의 의미 기능을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문법 항목이 지니는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학습자가 익히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습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교사: ‘그래서’와 ‘따라서’는 모두 인과 관계에 속하는 단어예요. 인과 관계에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인데, 두 단어는 서로 의미에서부터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꼭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 외에도 서로 여러 가지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따라서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
사용 환경	구어(말), 문어(글) 환경에서 모두 사용한다.	논리적인 성격의 문어(글)에서 많이 사용한다.
기본 의미 기능	결과 도출 기능 화제 전환 기능(구어)	결론 도출 기능
중국어 대응 표현	所以	因此(綜上所述)
어감	일상적인 느낌	논리적인 느낌

교사: 표를 보시면 ‘그래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거나 화제를 바꾸는 기능을 하고, 말과 글

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서’는 논리적인 성격으로, 이유, 즉 근거와 결론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논리적인 성격이 강한 글에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표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글에서는 두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언어교육과 학생 흐영 씨 아닌가요?

흐영: 네. 제가 흐영인데요. 김수진 씨 맞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수진: 네, 저도 반가워요, 흐영 씨는 한국어 배운 지 오래됐어요?

흐영: ① 아니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따라서** ② 아직 서툴러요.³⁹⁾

교사: 흐영의 마지막 말을 보면, 한국어가 아직 서툰 이유를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즉 ①과 ②는 각각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근거에 따라 도출된 결론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보다는 ‘그래서’가 쓰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이렇게 대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글에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사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① 비타민과 같은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면 여러 유형의 암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그러나 흡연을 하는 사람의 경우, 건강 보조제를 통한 암 억제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암 발병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이는 흡연이 비타민 소모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비타민의 기능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따라서** ④ 흡연자는 비타민 등의 건강 보조제를 섭취해도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병의 억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교사: 마지막 문장인 ④번은 앞 문장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결론은 단순히 ③번 문장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①, ②, ③번 문장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내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결론’의 의미를 지니는 ‘따라서’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와 관련하여 ‘따라서’는

‘그래서’와 다르게 한 문단 안에서 근거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문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장, 문단과 문단의 접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따라서’는 논리적인 성격이 강한 글에서 잘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연습 단계(20분)

연습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사용하여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문법 항목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때 다양한 연습 활동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그래서’와 ‘따라서’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수업에서 학습한 텍스트 접속 표지 ‘그러나’, ‘하지만’ 또한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연습을 수행함으로써 지난 학습 내용을 상기함으로써 해당 텍스트 접속 표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 목표에 따라 세 가지 연습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교육 목표 (가)
 ‘그래서’와 ‘따라서’를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연습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① 유나: 리리 씨, 중국에서는 위챗을 많이 사용하나요?
 리리: 네, 위챗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 다른 앱보다 위챗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39) 《이화 한국어 3-1》에서 인용하였음.

② 유나: 리리 씨, 왜 위챗을 많이 사용하나요?

리리: 위챗에서는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요. () 한국에 있어도 위챗을 많이 써요.

유나: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 친구들과 연락할 때도 위챗을 사용해요?

리리: 한국 친구들은 카톡을 많이 사용해요. () 요즘에는 위챗을 쓰는 한국 친구도 늘고 있어요.

③ 휴대 전화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휴대 전화 사용과 귀의 염증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에 위험을 주는 요소는 어른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므로 어린아이들에게 휴대 전화를 장시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지닌 앱을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위챗을,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앱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중국에서 위챗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낳았다. () 현대인은 고도의 과학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지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정답: ① 그래서 ② 그래서, 하지만 ③ 따라서 ④ 그러나, 따라서

교육 목표 (나)

‘그래서’ 와 ‘따라서’ 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연습 2. 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

- ① 나는 위챗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계정을 신청했다.
- ② 카카오톡에는 귀엽고 재미있는 이모티콘이 많다. 하지만 돈으로 사야 한다.
- ③ 중국에서는 VPN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면 위챗을 배워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휴대폰에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으면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친구를 추가한다. 그러나 위챗은 반드시 친구신청 후 상대방의 수락을 거쳐야 한다.
- ⑤ 위챗이나 카카오톡의 기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휴대폰의 성능에 대한 요구치도 높아졌다. 따라서 스마트 폰의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정답: ① 我忘記了微信的密碼，所以申請了一個新的賬戶。

② 卡考上面可愛又有趣的表情很多。可是不能免費用。

③ 在中國如果沒有單獨下載vpn的話就不能使用卡考。所以韓國人來中國 不得已要學習使用微信。

④ 手機裏輸入聯系方式卡考就會自動添加朋友。但是微信必須要經過朋友驗證

⑤ 微信和卡考功能越來越多樣，對此，手機的性能要求也就隨之高。因此手機的價格也會不斷增加

연습 3. 다음 문단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2011년 1월,騰訊推出名爲微信的應用軟件，到現在微信已經成爲國民app。不僅是年輕人，就連老年人也對微信功能了如指掌。微信跨越了簡單的聊天功能，打車，支付，點餐，越來越多的功能在這裏集合。綜上所述我們可以說微信是一個超級app。

정답: 위챗은 2011년 1월에 텐센트에서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앱이다. 위챗은 오늘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가 좋아한다.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콜택시, 결제, 음식 주문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더 다양한 기능이 한 앱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위챗은 중국에서 국민 앱, 혹은 슈퍼 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 목표 (다)

‘그래서’와 ‘따라서’가 어떠한 의미 관계에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기.

연습 4. 내용에 맞는 순서대로 문단을 구성해 보십시오.

- ① ㉠ 현대인들은 한가한 시간에 위챗에서 제공하는 미니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 ㉡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 그러나 이러한 미니 게임은 현대인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다.
- ㉣ 이는 미니 게임이 점수로 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1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 또한, 간발의 차이로 1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있다.
- ② ㉠ 이는 곧 편의를 위한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이 범죄의 수단으로 변질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다.
- ㉢ 그러나 피의자는 한국의 사생활 보호 정책으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 최근 카톡으로 음란물 전파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 사실 이러한 범죄 활동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 따라서 정부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
 ② ㉣-㉠-㉡-㉢-㉤-㉥

▶생산 단계(5분)

연습 단계는 교수자가 연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텍스트 접속 표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라면, 생산 단계는 학습자가 텍스트 접속 표지를 실제 쓰기 과정에 활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습 단계에서 형성된 언어적 지식을 강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습 5. 중국에서는 ‘위챗’을,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챗’과 ‘카카오톡’은 기능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에 제시된 바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1. ‘위챗’과 ‘카카오톡’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
2. ‘위챗’과 ‘카카오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기.
3. 텍스트 접속 표지 ‘그래서’, ‘따라서’, ‘그러나’, ‘하지만’을 사용하기.

▶마무리(5분)

마무리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텍스트 접속 표지 ‘그래서’와 ‘따라서’의 용법을 강조한다. 그다음 학습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교사: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번 수업에서 배운 ‘그러나’와 ‘하지만’처럼 의미는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래서’와 ‘따라서’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단순한 결과를 나타낼 때는 ‘그래서’를 쓰고, 여러 근거를 종합한 결론을 내릴 때는 ‘따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학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닌 접속 표지가 오늘 배운 것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수업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해나가도록 하고, 과제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 나타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접속 표지 오류 양상을 살펴본 뒤, 한국어 학습자가 학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텍스트 접속 표지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논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소개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텍스트 접속 표지는 기존에 담화 표지 또는 접속 부사로서 활발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학술 보고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에 나타난 텍스트 접속 표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텍스트 접속 표지와 학술 보고서의 개념 및 특징을 밝히고, 두 개념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접속 표지는 텍스트 내에서 접속 기능을 수행하면서 좁게는 단어나 구, 절, 넓게는 단락이나 텍스트 전체에서 다양한 의미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라 정의하고, 그 유형은 접속 의미 관계에 따라 크게 ‘상술 관계’, ‘대립 관계’, ‘인과 관계’, ‘나열 관계’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상술 관계에는 ‘환언, 첨가, 예시’의 기능을 하는 표지, 대립 관계는 ‘대립, 양보’의 표지, 인과 관계는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표지, ‘나열 관계’는 ‘단순 나열, 순서 나열’ 표지로 유형화하였다.

한편 학술 보고서는 학술적인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그 내용과 결과를 논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일종의 소논문으로 정의하였다. 그 유형은 설명 보고서, 논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감상 보고서로 나누었다. 또한, 학술 보고서의 특징으로는 ‘독창성’, ‘정확성’, ‘무일탈성’, ‘객관성’, ‘검증성’, ‘용이성’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인 모어 학습자를 K 집단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C 집단으로 상정하여 두 집단에서 작성한 학술 보고서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빈도에 따라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빈도는 전체 사용 빈도, 접속 의미 관계별 사용 빈도, 텍스트 유형

별 사용 빈도로 대조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두 집단의 텍스트 접속 표지 사용 양상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은 모두 18가지의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를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K 집단의 사용량이 C 집단보다 1.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의미 관계에 따른 사용 양상으로는 두 집단 모두 상술 관계의 첨가 표지 ‘그리고, 또한, 또’ 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다음으로 대립 관계에서 대립 표지인 ‘그러나’ 와 양보 표지 ‘하지만’, 인과 관계 가운데 결과 표지인 ‘그래서, 따라서’ 가 많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서는 K 집단의 경우 설명·논증 보고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한편, C 집단에서는 사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두 집단에서는 텍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C 집단의 학술 보고서에서 나타난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의 오류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오류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한국어 학습자가 텍스트 접속 표지가 내포하는 구어성과 문어성, 그리고 유사한 의미 기능을 지닌 텍스트 접속 표지 간 차이와 접속 의미 관계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립 표지 ‘그러나’ 와 ‘ 하지만’, 결과 표지 ‘그래서’ 와 ‘따라서’ 를 중심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급 단계에서 쓰기를 처음 접한다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대상은 중급 단계에 막 진입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개별 텍스트 접속 표지를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같은 의미 관계에 속하는 접속 표지 간 유사한 의미 기능 및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그다음 교육 방안은 한국어 교육에서 대표적인 교수 모형에 해당하는 ‘PPP 모형’ 을 바탕으로 ‘도입-제시-연습-생산-마무리’ 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에 따른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 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접속 표지를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모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학술 보고서에 사용된 텍스트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 텍스트 접속 표지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교육 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다양한 언어권 출신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과 교육 내용의 실용성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러한 문제는 꾸준한 후속 연구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11), <한국어 교육에서의 담화 연구 분석>, 《한국어 교육》 제23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19~256.
- 곽지영 · 김미옥 · 김제열 · 손성희 · 전나열 · 정희정 · 조현선 · 한상미 · 한송화 · 황인교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도영(2016),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접속 부사의 교육의 방향성 연구-세종형태 분석 문어 코퍼스의 설명문, 논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37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103~120.
- 김미선(1996), <접속 부사 연구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2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92~106.
- 김미선(1998), <접속 부사 연구3 - ‘그리고’ 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26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35~49.
- 김미선(1998), <접속 부사 연구II: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26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18~131.
- 김미선(2001), <접속 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봉순(1995), <‘텍스트 구조 표지’의 독해에서의 기능>, 《국어교육학연구》 제5권, 국어교육학회, pp.75~97.
-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 《국어교육》 102호,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pp.27~85.
- 김선정 · 김용경 · 박석준 · 이동은 · 이미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0), 《한국어 표현 교육론》, 형설.
- 김성수 · 진영복 · 조민정 · 김현강(2013), 《(유학생을 위한)한국어 대학 글쓰기》, 박이정.
- 김양선 · 심보경 · 최성민(2016), 《(대학생을 위한)글쓰기 강의》, 박이정.
- 김정남(2008), <텍스트 유형과 담화 표지의 상관관계: 유학생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텍스트언어학》 제24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1~26.

- 권재술 · 손천택 · 이성흥(2011),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 교육과학사.
- 노대규(1992), <국어의 입말과 글말의 의미론적 특성 연구>, 《매지논집》 제9권,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pp.1~38.
- 노미연(2013),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응결 장치 사용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60권, 동악어문학회, pp.273~308.
- 류선숙(2017),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 나타난 접속부사 사용 양상 연구: 빈도 정보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제29권, 한국문법교육학회, pp.143~168.
- 박건숙(2020),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과관계 접속부사 연구: ‘그래서’와 ‘따라서’를 중심으로>,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학습지중심교과교육학회, pp.1215~1237.
- 박수연(2016),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의 장르 분석 연구: <선행연구>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016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pp. 256~269.
- 박영순(2004), 《한국어 담화 · 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백승주(2011), <한국어 접속표현과 영어 접속표현의 변환(shift) 현상 연구: 접속부사 “그러나”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2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1~162.
- 사와다 히로유키(2004),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사용과 오류 양상>, 《국어교육연구》 제14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147~182.
- 서반석(2018), <한국어 접속 부사에 대한 인지 · 텍스트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평(2018), <한국어 접속부사 ‘또한’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한국어문교육》 제26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241~263.
- 서평(2019a), <숙달도에 따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응결장치 선택 양상 연구-연결어미와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30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90~110.
- 서평(2019b),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접속부사의 오류 양상 연구-중 ·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pp.239~266.
- 송현주 · 비신연(2014),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접속 부사 목록 연구: 어문학, 역사, 철학 분야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61권, 한국문학언어학회,

- pp.75~98.
- 신지연(2003), <거시구조 접속의 양상 : 일간지 사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14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89~110.
- 신지연(2004), <논증 텍스트에서의 "그러나"의 주제 전개 기능>, 《텍스트언어학》 제16권, 텍스트 언어학회, pp.41~63.
- 신지연(2005), <접속부사 '그러나'의 의미>, 《한국어의미학》 제18권, 한국어의미학회, pp.23~48.
- 양태영(2010), <설명텍스트의 표지와 텍스트구조 분석>, 《한국어의미학》 제31권, 한국어의미학회, pp.109~142.
- 역초(2017),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전략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제12권,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pp.263~281.
- 연동숙(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텍스트 결속적 접속표지 대조 연구>, 《中語中文學》 제37권, 한국중어중문학회, pp.38~49.
- 염혜경(2010),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텍스트구조 및 텍스트구조 표지어 활용 전략>,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학술대회》 제2010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229~241.
- 유나(2011),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담화 표지 교육 내용구성에 대한 연구 -접속표지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11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55~467.
- 유혜진(2004), <유의관계 접속어군의 의미 변별 연구:나열, 대응, 인과 관계 접속어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이남경(2008),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한국어와 문화》 제4권,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pp.287~309.
- 이덕희(2003), <요구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숙의·김진수(2008), <문어 텍스트와 구어 텍스트의 담화 표지와 텍스트구조 비교 연구>, 《어문연구》 제56권, 어문연구학회, pp.61~88.
- 이효인(2005), <텍스트구조 표지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효인(2019), <텍스트구조 표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한국어 능력 시험

- (TOPIK)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665~684.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 한국어 3-1》, Epress.
- 장기열(2003), <국어 접속 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제19권,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pp.175~194.
- 장범(2012),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 표지 활용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정줄(1982), <국어의 접속사 연구>, 석사학위논문(동아대학교 대학원).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제4권, 한국화법학회, pp.113~145.
- 정영교(2018),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접속 표지 연구>, 박사학위논문(세종대학교 대학원).
- 조진수·노유경·주세형(2010), <“텍스트 표지” 교육 내용에 대한 문법교육적 고찰>,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pp.1~31.
- 주향아(2019), <접속부사 ‘그리고’와 접속어미 ‘-고’의 의미 비교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제47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467~494.
- 진염민(2012), <중국어 접속표지 연구-한국어 접속표지와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제18권, 신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pp.150~163.
- 진정은(2006), <한국어의 대립 접속부사 문법 기술 연구: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차봉준(2015), <담화 표지 교육을 통한 학문 목적 텍스트 구성 교육>, 《교양교육연구》 제9권, 한국교양교육학회, pp.313~341.
- 차윤정(2003), <‘그리고’의 의미적 특성>, 《우리말연구》 제12권, 우리말학회, pp.49~69.
- 최선미(200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술 보고서 쓰기 교재의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최웅(2008), 《대학생 글쓰기의 길잡이》, 북스힐.
- 최윤곤(200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한국문화사.

- 하지걸(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접속 부사 교육 방안 연구: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송화(2013), <한국어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 텍스트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3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139~169.
- 한송화(2016), <한국어 학습자의 접속 부사 사용 양상 연구>, 《한글》 제311권, 한글학회, pp.257~428.
- 한재영 · 박지영 · 현윤호 · 권순희 · 박기영 · 이선웅 · 국립국어원 · 한국어세계화재단 (2008), 《한국어 문법교육》, 태학사.
- 함계임(2006), <접속 부사의 한국어 교육학적 접근 : ‘그러-’ 형의 접속 부사 중 양보의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2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89~113.
- 함계임(2007), <대립의 ‘그러-’ 형 접속부사의 한국어 교육적 접근 : 문법적 제약, 의미 분석, 대치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제14권,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407~428.
- Ameka.F.(1992), *Interjection: the Universal yet Neglected Part of Speech*.
Journal of Pragmatics.
- Fraser,B.(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rnbury, Scott(1999), *How to learn grammar*, Harlow: Longman.